

# 海清堂

2540년  
봄 호  
제 9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 고 향 수

「스님 이게 뭐죠?」  
「보조 국사님 지팡이 였다고 합니다.」

「언제 건데요?」

「고려 때니까 거의 800년 동안 서 있는 셈이죠. 보조 스님이 지팡이를 꽂으면서 ‘我生汝生, 我死汝死.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답니다.」

송광사 일주문을 지나 우화각 앞 오른편 돌무덤 가운데 서 있는데 주위의 봄 잔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번잡한 가지들을 모두 놓아 버리고, 바람에 몸을 맞긴 채 침묵으로 선 나무 枯香樹!

언제나 삭발한 無心山僧의 모습이다. 길손은 그 여여로움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국사전에 있는 보조국사의 진영을 사진 찍어 작게 코팅한 것을 주머니 속에 늘 자랑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고향수를 마주하고 손을 모으면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네가 누구냐’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가 타이르듯, 때로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듯 ….

어눌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습이 고향수에 어려 있습니다.

어둠을 꿰어 버리는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른 향나무는 몸을 나투기 시작하고, 밝음은 세포 하나하나 속으로 정밀히 파고듭니다. 길손의 정신은 한없이 또렷(惺惺)해 집니다.

저녁 예불, 서른 세 번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석양이 산마루에 걸릴 즈음 마른 향나무는 하루 동안 눈과 귀를 더럽혔던 것들을 비늘처럼 벗겨 냅니다. 길손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寂寂)해 집니다.

소치는 이의 채찍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가 걸듯, 물이 흐르듯,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또랑또랑하게 살라 합니다.

여전히 중생의 밤은 깊고 깊은데….

枯香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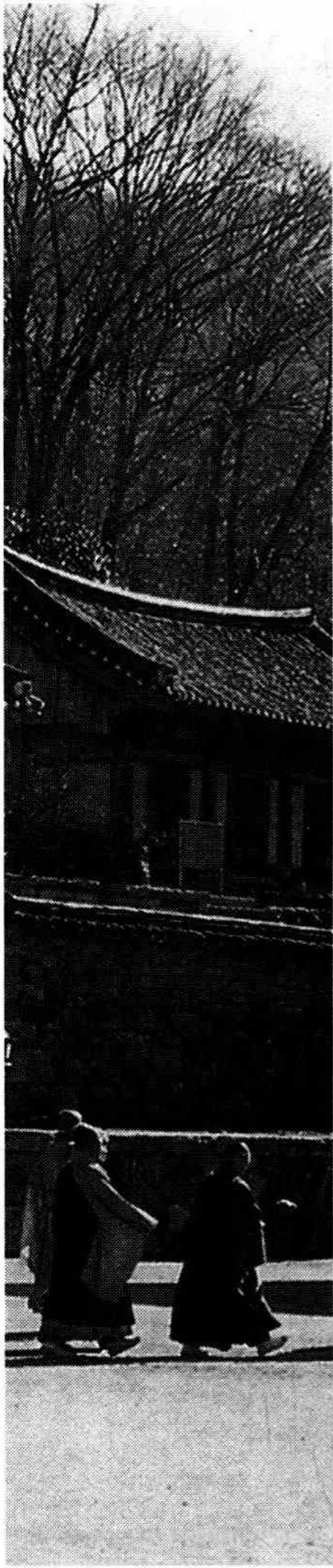
조계 후학들의 무명에 등짝을 후려치는 장군죽비로 서 있습니다.

# 海清堂

2540년  
봄 호  
제 9 호

발행처/송광사 강원·發行人/智雲(講主)·편집인/영경(입승)·편집장/도은·편집/연각, 범우, 녀혜, 도웅·사진 삽화/한운·발행일/2540년(음)3월 25일·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661) 755-5300, 5302 인쇄처/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062)232-6702

## 차 례



|         |                            |     |   |
|---------|----------------------------|-----|---|
| 조계의 물소리 | 고향수                        |     |   |
| 포토에세이   | 2/산행                       | 한   | 운 |
| 순례기     | 4/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탐방            | 범   | 종 |
| 시       | 9/생각과 출가                   | 진   | 종 |
| 지대방 이야기 | 10/봄날의 회상                  | 연   | 각 |
|         | 12/송광사 무형문화재               | 일   | 대 |
|         | 14/봄햇살처럼                   | 도   | 선 |
|         | 17/산을 좋아하는 이에게             | 정   | 륜 |
| 기획대담    | 18/茶人 지허스님을 찾아서            | 편집실 |   |
| 편지      | 22/본연스님께                   |     |   |
| 특별기고    | 24/아름다움을 꿈꾸나요              | 보   | 경 |
| 기획연재 7  | 26/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 | 지   | 운 |
| 일기      | 38/비전일기                    | 보   | 원 |
|         | 40/토굴의 하루                  | 본   | 연 |
| 소감문     | 42/행자교육을 마치고               | 정   | 원 |
|         | 44/행자교육을 다녀와서              | 보   | 일 |
| 불교의식개론  | 46/영산재에 관하여                | 종   | 지 |
| 원전번역    | 50/칠처징심(七處徵心)              | 도   | 제 |
| 방문기     | 31/ 남보타사를 다녀와서             | 지   | 운 |
| 화보      | 34/화보와 소식                  |     |   |
| 경전 한귀절  | 55/결림없이 살줄알라               |     |   |
|         | 56/편집 후기 및 후원 안내           |     |   |

## 산행

어디서 온 황토바람이길래  
저리도 거센가!  
저질러 놓은 것만큼만  
어깨에 짊어진 채  
쉬어 가란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련다  
짐 벗을 그 곳으로...

사진·글 : 한운/사교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탐방

1995년 6월 5일 - 9일 (4박5일)

한주/범종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 보다는 킬링필드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참혹한 현상이 생각난다.

마침 여행사에서 짧은 기간에 참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시간을 내어 몇몇 스님네

와 함께 돌아보기 위해 베트남 항공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지난번 해 인사 선원에서 지낼 때 종무소임을 보던 스님네(재무,원주)와 일행이 되어 반가웠다. 더구나 파병 시절의 옛 생각이 되

살아나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세계평화를 위하는 길이라 하여 청룡 부대 사병의 몸으로 파병되어 월남 다낭에서 깊숙이 들어간 디엠반에 주둔하고 있을 때, 아침 도로 정찰을 나갔다 돌아

오는 중에 흰 아오자이를 입은 여고생들의 오토바이 뒷좌석을 얻어 타고 오면서 혼자만이 짝 사랑하듯 귀여운 학생들의 가느다란 허리를 양팔로 꼬옥 껴안고 정문에 도착하던 희미한 옛 기억이 솟아났다. (그때가 1968년 7-8월정도 였을텐데)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덧 비행기는 남으로 남으로 날아 호치민 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그때는 사이공 주월 사령부가 있었고 미군들이 많이 상주하는 수도로서 탄손누트 공항이라고 했었다.) 내려다보이는 밀림 지대며 메마른 들녘이 가슴 저편에서부터 슬픔 같은 것이 되살아나게 했다.

공항에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후덥지근한 기온은 옛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듯 싶는데 사람과 이념은 정반대로 바뀌 버렸으니...

옆 나라 캄보디아로 날아가면서 보이는 평야 지대의 드넓은 벌판,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밀림지대, 메콩강 줄기 따라 갈라진 국경을 넘어 프놈펜 공

항에 도착하였다. 국제 공항이라고 하지만 시골의 비행장처럼 초라한 것이 20여 년간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실정을 말해 주는 듯 싶었다. 입국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 외래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드나들기 어렵게 느껴졌다. 한국인이 경영한다는 캄보디아 프라자호텔에 여장을 풀고 차를 마신 후 복잡하고 후미진 골목을 벗어나 킬링필드 현장을 찾아 나섰다. 백만 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여 외곽 지대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버렸다는 현장.

5층 높이의 유리창 안에는 발굴해 낸 두 개골이 뺨뺨이 들어차 가슴을 썩늘하게 만들었다. 구멍나고 쪼개진 해골을 바라보며 심경 한편을 일행과 함께 독송해 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었다. 크고 작은 소리가 한데 엉키고 설킨 비좁은 시장통을 빠져 나와 메콩강변에 자리한 한국 식당을 찾았다.

전쟁 후 월남 여인과 결혼하여 한동안 사이공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고 한다. 야자수 휘 늘어진 강변 벤치엔 남녀노소 많은 인파가 저녁 강바람을 쏘이려 나왔건마는 가느다란 풀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후덥지근한 기후이다. 강 가운데 두서너 척의 작은 낚싯배가 어두워져가는 물길을 따라 한가롭게 낚싯줄을 드리우는 모습이 평화롭다.

6일. 작은 프로펠러기를 타고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발 밑에 거대하게 펼쳐진 톨리삽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는 직경이 약 160km에 달해, 한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400리나 되는 거대한 호수를 지나 북상한 비행기는 샘리압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옛 앙코르가 번성할 때 수도로써 절대적인 권력의 핵심 부분이었던 것을 1432년경에 태국에서 일어난 샘족의 침략과 약탈로 인하여 수도를 프놈펜으로 옮겨가고 이 지역은 밀림 속에 묻혀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약 400여 년 간 묻혀 있던 유적지를 1860년경 프랑스 탐험대와 고고학자들이 황폐해진 유적지를 세상에 알리고 난 후

부터 도굴범들이 많이 찾아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며, 그 후 1970년경부터 내전에 돌입한 관계로 다시 오가는 발길이 끊어지고 무성하게 자란 수목 속에 점점 감추어지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르러서야 방문자들의 발길이 다시 찾기 시작했다.

여장을 푼 후 오후의 스콜이 지난 다음,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12세기에 만들어진 바이온 사원의 남문이다.

가로 3km, 세로 4km에 달하는 면적의 사방엔 폭이 100여 미터에 달하는 수로를 파내어 방어용으로 사용했다는 다리가 있고, 양쪽엔 보살상 같은 우람한 신상들이 나가신의 몸통을 붙잡고 있는 형상 수십 개가 앉아 있었다.

들어오는 문은 20여 미터에 달하는 높이에 사면불이 돌이 음으로 조각되었는데 각각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는 대형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문이 좁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 곳 앙코르 유적지는 전체적으로 천여 개의 사원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40여 개

를 발굴하여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밀림이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정문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니 본당 건축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같은 크기의 건축물이 54개나 서 있고 각각 4면의 흉상을 더해 보니 216개의 큰 조각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부는 많이 훼손되어 있고 섬세한 조각품도 많이 있었다.

가운데 우뚝한 부분의 작은 공간에는 시바신상을 모셔 놓은 듯 싶었다. 이를 미래불이라고도 표현한다는데 아마도 당시 통치자의 얼굴을 신성시하여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허물어진 돌 틈을 비집고 나온 일년초는 따스한 햇살을 받아 꽃망울이 한층 더 돋보였으나 작은 총에 의지한 채 한쪽 구석진 곳에 경계 근무하는 병사의 힘 없는 눈망울은 더위에 지친 탓일까...

코끼리 사원답게 크고 작은 코끼리 군상이 많이 조각된 기단 부분을 지나서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숲길을 빠져 나

와 동문을 지나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남문에 비하면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 다른 사원을 보니 그야말로 나무가 돌을 깨뜨리는 현상이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한 나무 뿌리가 돌담장과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이었다.

주인 없는 천년의 영화는 이제 한 그루 나무 뿌리도 이기지 못하는 주체가 되어 있으니 인간사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기고 지고 하는 굴레 속에 돌고 도는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참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땀으로 흠뻑 젖은 등엔 소금기가 베이고 고무신 발바닥이 후끈거릴 쯤 먼지 낀 손을 털고 나오는데, 일가족인 듯 싶은 4~5명의 가족들이 민속 음악을 연주하며 자녀들에게 엉덩춤을 추게 하는 걸 보니 왠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지근한 물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빠져 나와 앙코르와트에 돌아오니 특트인 시야가 시원스러웠다. 이 나라 국기를 보면 아래위로





반씩 붉고 푸른 바탕 한가운데 다섯 개의 개나리색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이라 한다. 많은 나라 국기 중에 사원 건축물을 문양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 그만큼 이곳 사람들은 마음속에 앙코르와트의 신념을 가슴에 담고 생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

그 좋은 예로 20여 년 간 내전이 전개되면서 우후죽순 마

냥 생겼다 멸해지는 많은 정치 집단들도 한결 같이 앙코르와트의 문양을 새긴 당 깃발을 보유하고 있다 하니 이념과 갈등은 많아도 앙코르와트의 사상을 빼버리면 국민들을 이끌어 드릴 수 없는 실상을 엿보게 되었다.

이 앙코르와트가 불교 사원임을 강조하고 싶어졌다.

이곳도 190여 미터에 달하는 안자에 둘러 쌓여 있는데 외벽

이 1킬로 남짓 된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햇살을 뒤로하고 내비치는 모양이나 석양에 물든 모습이 너무나 황홀스럽다.

오전에 둘러 본 사원들은 한 구역 안에 묶여져 있었는데 이 왓트사원은 단일 사원으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다리 입구에 세워진 나가신(머리가 6개 달린 코부라신)의 섬세한 조각들이 눈길을 끌고 회랑의 대리석 벽화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이러니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할 수밖에...

석양이 물드는 왓트사원을 보기 위해 건너편 작은 언덕에 위치한 사원 터를 찾아 힘겹게 올라가 보니 아직 해가 많이 남아 있었고, 시원한 바람결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 주었다. 점점 구름이 생기더니 하늘이 캄캄해져 석양 노을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오전. 밀림 우거진 숲길을 헤집고 한참을 지나 7세기부터 9세기경에 세워진 타프롬, 바콩, 프라코, 프라칸, 타케오 사원 등을 돌아보고 앙코르를 출발하여 다시 어제의 기착지인 프놈펜에 도착하여 재래시장에 들렀으나 시간이 늦어 문이 닫혀져 있었다.

시장 골목을 빠져 나와 왕궁 주변을 돌아보려 하였는데, 이곳도 너무 늦어 밖에서 볼 수 밖에 없었다. 강변에 앉아 저녁의 휴식을 취한 후 앙코르 왓트 문화 유적을 돌아본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숙소로 향했다. 내일은 사이공을 돌아

본 후 서울로 가야 한다.

다음날 오전. 프놈펜을 출발한 비행기는 45분 정도 지나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여 간단히 수속을 밟고 출구로 나오자 웬 사람들이 그리도 많이 모여 떠드는지 정신이 없었다.

아오자이를 입은 여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지금도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먼 친척까지 모두 나와 마중하기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한다. 오가는 차량과 헤아릴 수 없는 오토바이 소음에 귀가 따가웠다.

옛날 월남이 패망할 때 미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던 모습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았던 생각이 떠올랐다. 파병 시절에는 사이공에 직접 가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사이공 시내(호치민)를 활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청사 건물 앞마당엔 패망 당시 처음으로 월맹군이 탱크를 앞세워 철문을 부수고 들어온 탱크가 진열되어 있고 전쟁 박물관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 미군들의 웃음이 깃들인 얼굴에 베트남 생포 장면을 확대 해 둔 사진들이 많이 눈길을 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가슴아픈 일들이다. 저녁이 되자 시내는 오토바이로 도로를 가득 메웠다.

특별한 오락 문화가 없다 보니 저녁 시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선상에서 저녁을 먹고 강바람을 거슬러 야경을 구경한 후 호치민을 떠나야 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호치민시를 내려다보며 파병 시절이 떠올라 두 손 모아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하였다.

아침 7시 30분 서울 도착 예정.

# 생각과 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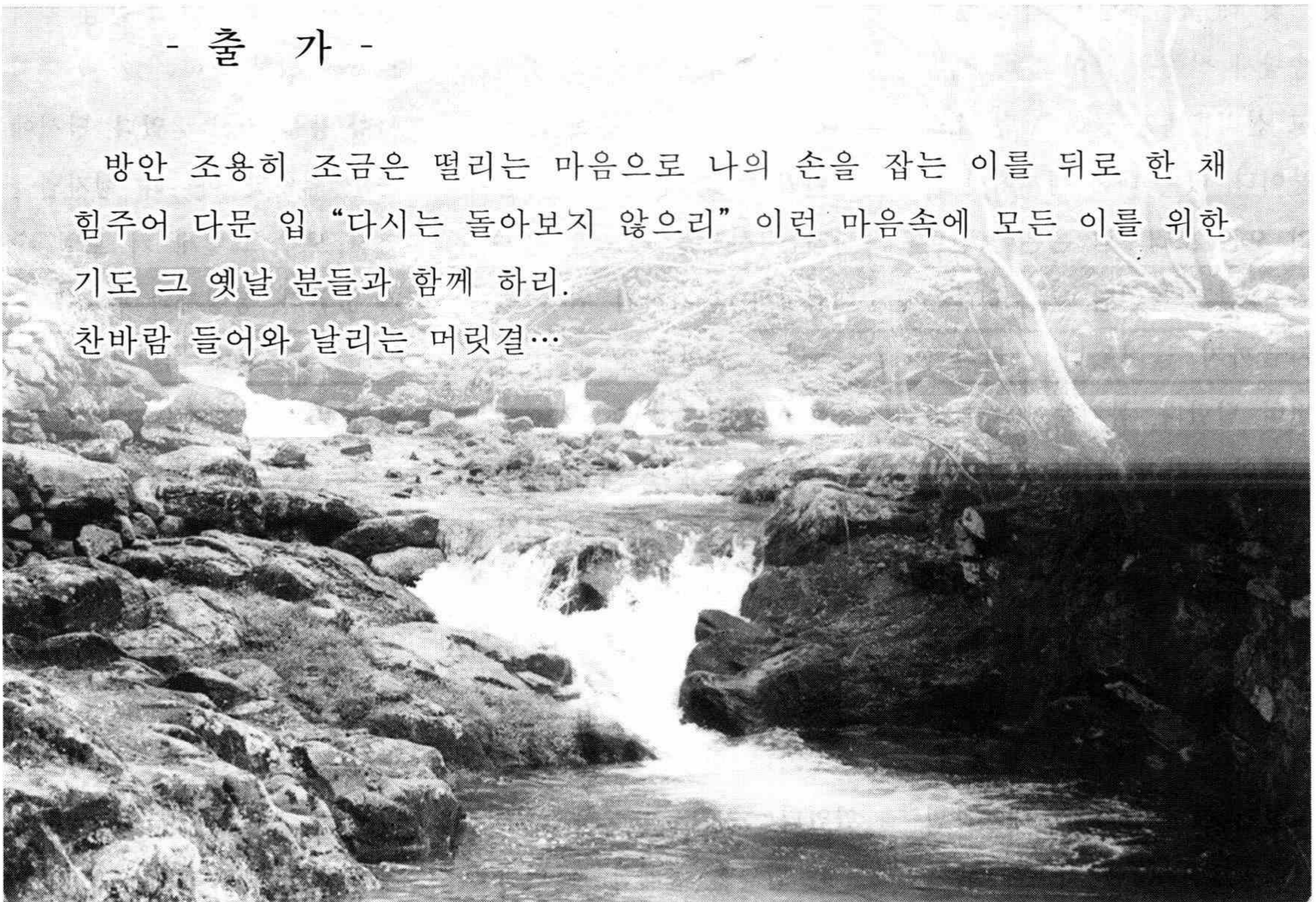
치문/진종

## - 생 각 -

“온갖 곳에 우리가 자리잡고 있지 않는가!” 하고 나무아래 혹은 골방에서 어느 곳에서 고요히 생각할 때, 산길 갈 때, 부는 바람에 옷자락 날릴 때, 저길 지날 때, 웬 어린아이의 합장한 모습을 볼 때, 봄 햇살이 우리의 머리를 따듯하게 지나쳐 갈 때, 살아감에 거대한 외로움이 우리를 조여올 때, 새벽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온 몸으로 수행자임을 잊지는 않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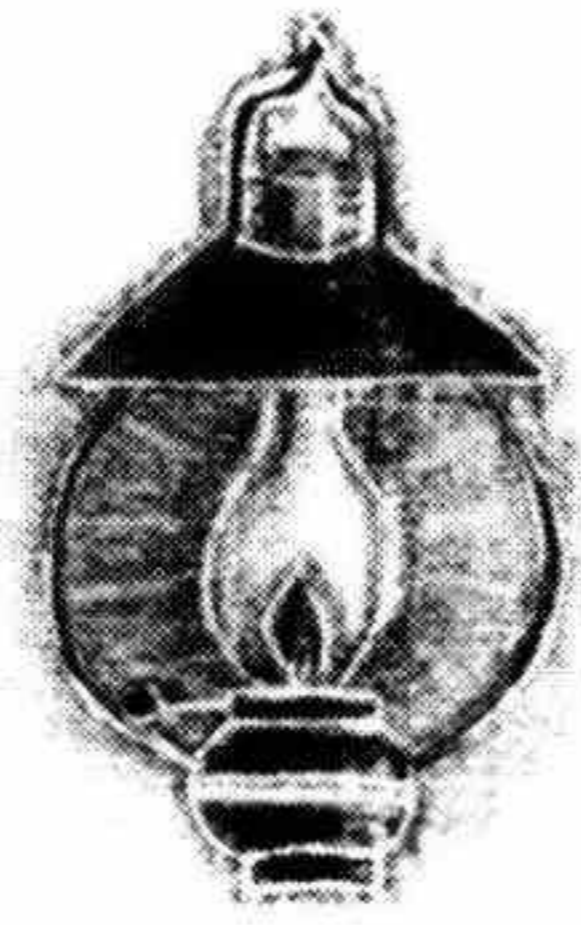
## - 출 가 -

방안 조용히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손을 잡는 이를 뒤로 한 채 힘주어 다문 입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 이런 마음속에 모든 이를 위한 기도 그 옛날 분들과 함께 하리.  
찬바람 들어와 날리는 머릿결...



# 봄날의 회상

사집/연각



**물**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대웅전의 예불  
독경 소리...

몇 해 전 스님이 되고 싶어  
송광사 산문을 들어설 때 새롭  
고 신비롭게만 들려 오던 소리  
들이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  
려 오는 소리처럼 은은한 신비  
감을 싣고 들리던 그 소리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봄기운이 감돌면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친지들과 이별하고 집을 나  
설 때의 굳은 의지와 각오가  
점점 산문이 가까워지면서 작  
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적이나 방송으로만 보고 들  
어왔던 승가의 생활! 대부분의  
큰스님들은 어린 나이에 출가

하셨다는데 ‘立志의 나이를 넘  
은 나의 입산을 승낙해 주실까’  
‘행자 생활이 꽤 어렵다던데  
어떻게 해낼까’ 등등...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은  
‘과연 나를 받아 주실까?’하는  
것이였다. 또 한편으로는 출가  
하려는 사유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출가하기 위해 왔다  
는 말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  
등등...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  
서 산문을 들어섰을 때 산사의  
소리들은 나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어 주었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큰 법당 앞에  
우두커니 한동안을 그렇게 서  
있었다.

큰 법당을 참배한 후 법당을

지키는 보살님께 ‘출가하러 왔  
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  
고 물었다. 보살님은 나를 행자  
실로 안내해 주었고 반장 행자  
로부터 입산에 따른 기본 주의  
사항 등을 지시 받았다. 당시에  
는 스님뿐만 아니라 행자님들  
까지 모두 그렇게 커 보일 수  
가 없었다. 상행자의 평소에 하  
는 말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들  
려와 바짝 긴장이 되어 있었다.

어찌됐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쉽게 받아 주었고 7일  
간의 대기 기간에 묵언(공양  
시간 이외의 시간을)과 시자실  
에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  
면서 스님이 되려는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만들  
어 주었고 출가하는 것은 그곳

긴 머리카락이 잘려 바닥에 툭툭 떨어질 때 그 묘한 기분은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길던 머리를 깎고 난 후의 어색함도 잠시뿐 먼저 들어온 한 상행자의 쉼새없이 쏟아지는 질책과 꾸지람은 서투른 손놀림을 더욱 어설피게 만들었다.

에서 받아 주고 받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3000배 참회를 한 후 원주 스님께서는 다시 한 번 출가의 뜻이 변함 없는지를 물어 보신 후에야 울원에 올라가 여러 선행자님들의 참회 진언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긴 머리카락이 잘려 바닥에 툭툭 떨어질 때 그 묘한 기분은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길던 머리를 깎고 난 후의 어색함도 잠시뿐 먼저 들어온 한 상행자의 쉼새없이 쏟아지는 질책과 꾸지람은 서투른 손놀림을 더욱 어설피게 만들었다.

간상, 채공, 청소, 공양 짓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지 소임 시간만 되면 머리가 둔하여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느니 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조리 꺾어 버리는 바람에 비애감마저 느껴지곤 했었다.

그래서 걸음 한 번 옮길 때에도 긴장이 됐고, 상행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섬뜩할 정도로 두려움이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

그토록 내 자신에게 인욕 공부를 시켜 주던 그 행자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끔 행자 시절을 떠올릴 때면 그가 그리워지곤 한다.

처음 절에 들어와서 행자 시절에 들었던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예불 소리 등은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었다. 긴장되고 분주함 속에서도 간간이 들

려 오던 이런 소리들은 생활의 어려움에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 시절도 어느덧 꿈같은 추억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신비롭게만 느껴지던 생활이 일상 생활로 변해 버렸지만, 봄이 되어 쏟아지는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 물오른 나뭇가지,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등은 다시 그때의 기억 속으로 돌이키게 한다.

그 시절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구도자의 삶, 세상 만물에 대한 새로운 느낌 등등...

활짝 피어난 봄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그 의미를 새겨 보고 현재의 나 자신을 점검해 본다.

이번 겨울은 입산한 이래 가장 추웠던 것 같다. 유난히도 어깨가 시리고, 움츠렸던 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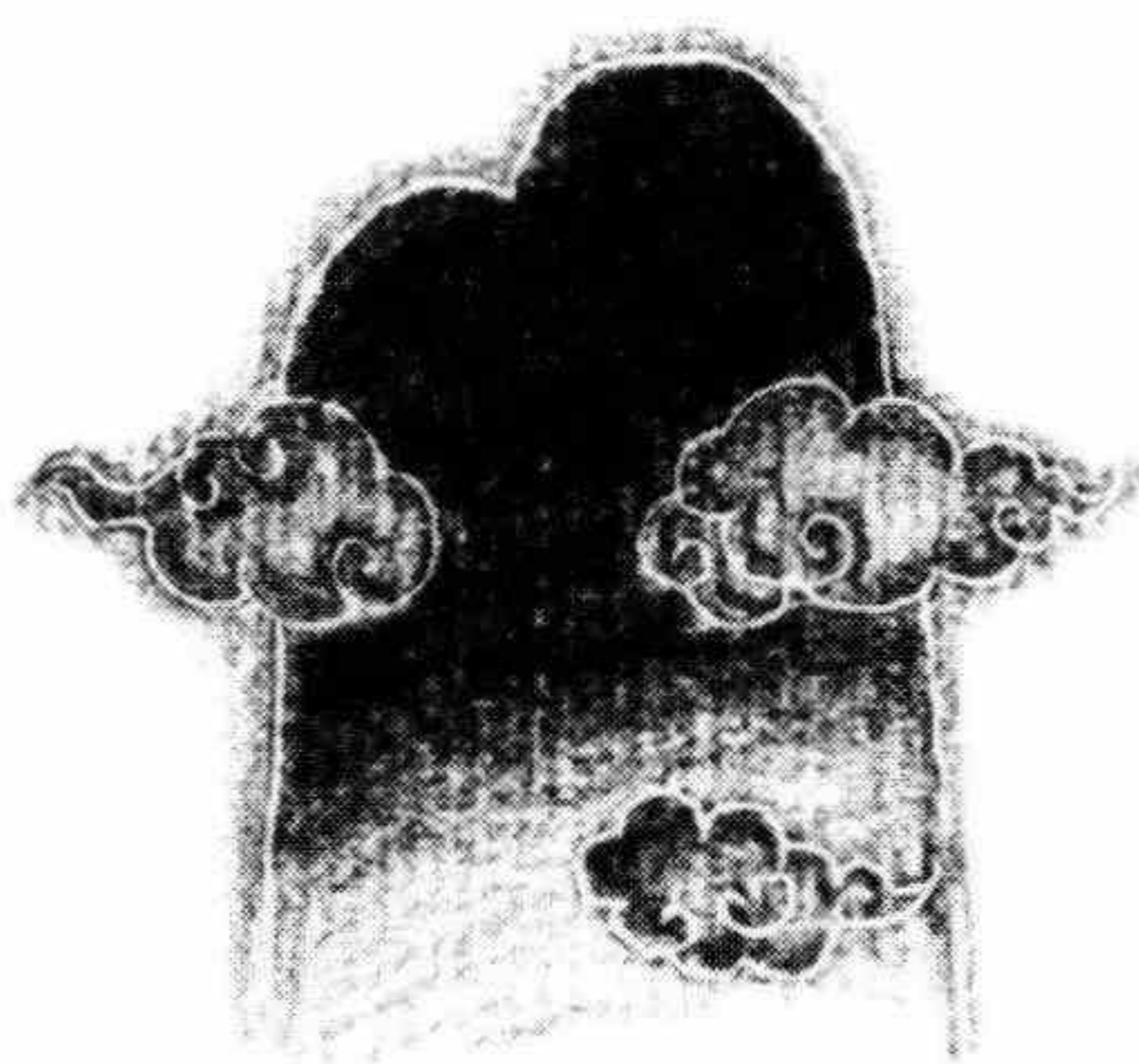
보통 삼월이 되면 서서히 봄소식이 들리지만 송광사의 봄은 사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련하기만 하다.

군데군데 진달래와 개나리가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아직 쌀쌀해서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스님들이 눈에 보인다.

송광사의 문화재나 볼거리는 참으로 많은 것 같다. 6·25때 큰 건물들이 대부분 전소되어 오래된 것은 많지 않지만 중수 이후의 면모는 아기자기한 가람의 옛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가람뿐만 아니라 조계산의 경치와 주암호의 주변 경관은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다.

## 송광사의 무형 문화재

사집/일대



조계산은 송광사에서 선암사까지 등산로를 따라 하루 일정으로 등산할 수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 중의 한 곳이다.

조계산을 오르기전 등산객들은 의례히 절을 참배한 후 산에 오르게 되는데, 청정한 도량과 자비로운 모습의 불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법당이라든가 돌담, 기와지붕, 대문의 빗장걸이, 문설주,

울타리 등 어느 것 하나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배이지 않은 것이 없다.

건물이 오래돼서 근래에 새로 중창된 것이라 할지라도 옛 선조들의 열과 정신을 되살려 그 속에 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

모양은 없으나 우리의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느낌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송광사에는 많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한 곳에 오랫동안 살면, 처음과 달리 환경의 여러 요소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주거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감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오히려 틈만 나면 레저다, 오락이다 하여 바깥으로 바깥으로 내달린다. 사실이지 일상생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사는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틀에 박힌 스님들의 생활은 뼈저린 자기반성과 각성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활에서 한 번쯤은 자연을 벗삼아 달려나가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사는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틀에 박힌 스님들의 생활은 뼈저린 자기반성과 각성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틀어 유형문화재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 우리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는 것들을 무형 문화재라 정의하면 지나친 억설일까.

하루 세 차례의 예불 시간 중 저녁예불은 앞서 말한 그런 진한 감동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가사와 장삼을 단정히 수한 후 대웅전 앞 도량에 걸음 내어 디딜 때 큰 북 소리는 넘어가는 저녁 노을과 어울려 장엄함의 극치를 이룬다.

법당에 앉아 있으면 대종 소리가 땅 속 깊숙이 울려 퍼지면서 온몸을 휩싸고 돈다. 조용하면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예불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곡조를 이룬다.

또, 아침 공양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새들의 지저귀이 아침이 밝아 오는 것을 노래한다. 비록 작은 鳥類에 지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소리로 즐거움을 안겨 주는 새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렇게 자취 없는 모습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때 본분사도 해결되리라. 창공처럼 살라 한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 봄 햇살처럼

사교/도선

**깊**은 산중에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진달래와 매화꽃은 아닐는지...

무르익은 봄기운에 취한 듯, 산골짜기의 여기저기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한창이다. 일생 동안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고고한 자태의 매화도 따듯한 봄의 숨결 앞에서 수줍게 피어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선사 트락의 하얀 목련도 활짝 피어나 山寺의 분위기를 더욱 정갈하게 해 주고 있다.

봄내음 가득한 4월! 도량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하고, 겨우내 얼었던 계곡의 물소리도 더욱 청량하다.

못 생명들을 살찌우게 하는 봄비가 내려 온 대지를 촉촉이 적셔 주고 있다. 이 봄비가 지나가면 얼어 있던 땅이 풀리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새싹들이

돋아날 쫓이면 예순이 가까운 성주사 老 처사 님의 손길도 이제는 마냥 한가하지만은 않으리라. 겨우내 묵혀 두었던 텃밭에 거름과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서 호박이며 상추, 아욱, 숙갓 같은 봄채소를 가꾸기 위해 오늘도 지계를 지고 언덕길

**남달리 성주사 부목처사님의 생각이 간절함은 봄 햇살 같은 그분의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 때문이리라.**

을 오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산청이 고향인 처사님을 뵈지도 몇 해가 지난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절에 살면서 밭농사를 비롯한 절 집안의 온갖 살림을 다 맡아 해 오신 부목 처사님 이지만 수행자 못지 않

은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다. 출가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세간의 가정을 가진 처사의 신분으로 높은 원력과 진리의 세계에 뜻을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두 분이 아니겠지만, 남달리 성주사 부목처사님의 생각이 간절함은 봄 햇살 같은 그분의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 때문이리라.

어느 해 봄날이던가 처사님과 함께 밭에 나가 채소를 뿌리면서 밭일을 하게 되었는데 묵혀 두었던 밭이라 잡초들이 많이 자라 있었다.

그런데 처사님은 많은 잡초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풀(草)들이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며 어떤 풀들이 몸에 해로운 것인지, 그 풀들의 특성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난간 모퉁이에 해맑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새들을 한 마리씩 불러 먹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신통을 부린다는 나반존자 도량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어린 비구니 스님이 어느새 신통력을...

여러 종류의 풀들을 잡초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몽땅 묶어 버리는 데도 이 老 처사님은 많은 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주면서 애정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주변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게까지 애정 어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더욱 놀라웠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이었을까? 한낱 작고 미미한 풀들이 老 처사님의 눈에 무엇으로 보인 것일까? 들판에 피어 있는 작은 풀까지 늘 애정 어린 눈길과 따듯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처사님의 모습을 어떻게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부(富)를 얻어서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고 다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어찌 비(比)할 바가 되겠는가. 오늘도 텃밭에서 무심히 채소를 일구며 살아가고 계실 처사님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아 본다.

지난번 방학 때 운문사 사리암에 기도하러 갔었다.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이 깊어 겨울인데도 계곡 물이 넘쳐흐렀다. 맑고 깨끗한 계곡의 물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참 복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사리암에 다다랐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건너편 앞산의 높은 봉우리들은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석양빛으로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이렇게 산세가 깊은

곳에도 절이 있었구나 오기를 잘했다'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서는데, 난간 모퉁이에 해맑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새들을 한 마리씩 불러 먹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신통을 부린다는 나반존자 도량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어린 비구니 스님이 어느새 신통력을...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의 하나가 무외시 보시라고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옛 스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자하도인이나 수월스님 같은 분들은 겁 많은 사슴이나 사나운 개, 심지어 호랑이까지도 스님의 품안으로 들어와 함께 놀기도 하고, 때로는 곁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마음을 허공과 같이 텅 비어 버린 도인들만이

가능한 무외시의 극치가 아닐런지...

산새들을 불러 먹이를 하나씩 주고 있는 저 비구니 스님도 이미 마음공부가 깊어져 벌써 그런 단계에 이르렀단 말인가! 내심 탄복하며 바라보고 있자 "땅콩만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있으면 산새들이 저절로 와서 먹고가요, 스님도 한번 해보श्य"라는 비구니 스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정말 나의 손바닥 위로 산새가 날아 올 것 같지가 않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손바닥 위에 땅콩을 올려놓고 기다리기를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나 정말 올 것 같지 않던 산새가 모이를 먹기 위해 나의 손바닥 위로 날아와 앉았다.

지금까지 가까이서 그렇게 맑은 산새의 눈망울을 본적이 없었다.

손바닥 위로 내려앉은 한없이 가냘프고 어린 산새의 감촉이 너무 좋고 신기해 땅거미가 질게 내릴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모이를 주면서 놀았다. 부모

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 때문에 학교에 가랴, 학원에 다니랴 공부가 너무나 짐이 되어 버린 우리의 아이들!

자연과 단절된 채 문명의 이기 속에서 메마르고 거칠어지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 한번쯤 이곳 사리암에 다녀갔으면 좋겠다.

푸른 대자연 속에서 정서가 한결 순화되고 어여쁜 산새와의 만남을 통하여 손끝으로 전해지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미물

일 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본래의 따뜻한 마음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만이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이 봄날 조출한 수행자의 청복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따스한 봄날 봄의 무한한 혜택과 은혜가 못 생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가득하시길...



# 산을 좋아하는 이에게

사집/정론

“네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

이 말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 어느 친구에게 빌려 보았던 수필집에 쓰여 있었는데 마음이 끌려 담아 두었습니다.

사춘기의 이력(‘오락전’에서 두드리며 예참하고 ‘튀김전’에 공양하고 교실에서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기) 등을 마쳐갈 무렵에는 불교에 대한 인연들이 다가 왔지만 그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속절없이 보내기도 바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의 청년기에는 누구나가 갖는 삶의 실존적 문제에 방황하였지만 시원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저럭 세상과 타협해갈 무렵 생사 기로의 일에 부딪치고 나서야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계승을 접하고, 닦지 않고서는 인생이 너무나 손해나지 않을까 싶

어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었지요. 물론 속가에서도 닦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이 한없이 산으로만 치달렸던 것은 은사스님의 범향기가 저곳에서 이곳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윽하여서 그곳에서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지요.

산에 살기 시작한지 1~2년에 산을 제대로 말 할 수는 없겠지만 휴일이나 평일에도 사람들이 산을 자주 찾는 것을 보면 그네들의 영혼이 외로워 서인지 아니면 맑은 공기와 산경에 끌려 찾는 건지...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사계절 모두 각각 모습을 바꾸어 가며 그때마다 산은 이야기를 달리 하지만 저는 몇해 전부터 겨울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합니다. 모든 것을 비워 내는 허허로운 겨울 산은 그저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다한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곡을 따라서 산길을 서성이다 보면 어디선가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고독해 산에 왔지만 산은 더욱 더 내 영혼을 고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을날 유리창을 깨트릴 것만 같은 맑은 햇살, 봄날의 한없이 안온한 기온이 때로는 우주의 미아로 목연의 춤을 추게도 하지요. 어차피 고독은 우리들의 숙명적 동반이기에 친숙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서투른 것만 같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독을 소리칠 때 우리 본연의 순수한 생명을 찾아 언젠가는 흰히 비취지리라 생각하면 고독 또한 훌륭한 동반이지요.

자! 그대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에 올라 그림고 그리운 동반을 만나 보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지만 비워진 마음으로 향하면 무한의 것들이 그대와 만나기 위해 봄날의 따스한 햇살로 다가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 다인(茶人) 지허스님을 찾아서

대담/편집실

사진/한운

스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茶의 달인이라는 평을 듣고 계시는 선암사 주지스님을 찾아뵈었다.

방에 들어서자 차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것이 그 명성을 짐작케 하였다. 다정다감하고 구수한 사투리로 '좋은 말보다는 바른 행(行)을 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이어 차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 차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여쭙어 보았다.

도은 : 한 조계산 자락을 끼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찾아볼 기회가 드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처음 차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지허스님 : 내가 여기 선암사에 입산한 게 1954년이었어.

와서 보니까 행자들이 한 7~8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몸이 약했고 일도 많았지. 그때는 쇠로 만든 '버라'라고 요즘 같으면 고무 다라 같은 데다가 쌀을 부어 씻어서, 조리로 일고 그걸 갖다가 큰솥에다 넣었어. 솥뚜껑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나는 한 번 넣을 때마다 몸살을 치고... 그러다가 두 달만에 많이 아파 버렸지. 그러자 노스님들이 모여 회의 같은 걸 하더라고. 그래서 선방 茶소임을 맡게 된 거여.

도은 : 차에 대해서 정통하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허스님 : 그때는 차가 부족해서 차를 얼마 못 만들었어. 거기다가 스님들이 얼마나 차를 많이 마시는지 공양죽비만

끝나면 들여야 한단 말이여. 한 두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대여섯 잔씩 계속 마셨어. 또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해, 방선할 때마다 나와서 드시니까 차를 당초에 댈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 못 가서 떨어지고, 그때마다 차를 만들고 심지어 겨울에도 굳은 이파리, 그걸 따다가 살짝 볶아서 들여놓고, 그렇게 행자 생활을 하다 보니 남보다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어.

도은 : 차가 처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허스님 : 보통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만 말한다면, 우리가 배고플 때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食이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飮이라



고 하지. 어느 나라든 물 외에 마실 거리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건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깐 아주 오래 전 일이겠지, '백산다'라고 하는 백두산에서 났던 사철나무 이파린데 그걸 사용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지.

도은 : 저희들은 차를 매일 마시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던데요.

지허스님 : 眼耳鼻舌身義가 모두 허무한 줄 아는데 차 맛이 무슨 대수겠어, 그냥 음료로 마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아주 좋은 말이 있지. 茶禪一味라. 차와 선은 한 맛이라는 말이야. 선(禪)하면 스님이란 뜻

이야. 스님하고 차(茶)하고는 맛이 한가지지. 가만 생각해 봐, 스님이 무슨 맛이 있을까? 무슨 맛이 있겠어? 스님이란 그야말로 심심한 맛이겠지.

도은 : 차는 다섯 가지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던데요.

지허스님 : 승가에서 할 소리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쓴맛, 단 맛, 짠 맛, 고소한 맛, 신 맛 해서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하지. 쓴맛은 인생의 불행을, 단 맛은 행복을 말하지. 두 맛은 서로 공존하고, 고소한 맛과 짠 맛도 서로 상충되지. 짠 맛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말하고, 고소한 맛은 두고두고

떠오르는 향수와 같고, 신맛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 같은 맛이야. 이 다섯 가지 맛이 분포가 똑같아야 한단 말이야. 어느 한 쪽이라도 기울면 제대로 된 차가 아니야. '차 맛은 인생의 맛'이라는 말이 있지. 이런 말들은 스님들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야. 혼침(昏沈)을 막는 거 그걸로 우리 만족해야지.

도은 : 차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허스님 : 우리가 경을 보던지 참선을 하던지간에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혼침 아닌가, 혼침은 필로도 다스리기가 어렵지. 특히 물리적인 방법으론 더욱더 그렇지.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요. 꼬집어도 보고, 세수도 해보고, 그래도 졸음은 다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혼침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관건이지.

그런데 차가 그 혼침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이거지.

‘能制病昏沈’이라.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거요. 아니, 우리 조사 스님들이 거짓말을 했겠어. 처음에는 무조건하고 마셔 보면 알 수 있게 돼.(웃음)

도은 : 지리산과 조계산이 차 생산에 있어 양대 산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허스님 : ‘남지리 북향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 우리나라 禪을 주도했던 곳이 남쪽은 지리산, 북쪽은 묘향산을 칭하는데 지리산 중에 어디냐 하면 칠불사이고 북쪽은 보현사지. 그런데 남쪽에서 지리산과 禪 도량으로써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지. 그게 바로 조계산이여, 그 중에서도 송광사 삼일암과 선암사 칠전 선원이지. 그런데 선원마다 지대방에는 항상 물이 팔팔 끓고 있어. 차를 끓일 물이지.

차나무 없는 선원은 없어.

지리산과 조계산이 차 생산지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이런 선맥(禪脈)이 끊기지 않는 도량이기 때문이지.

도은 : 스님네들 사이에 체질에 따라 차가 해(害)가 된다는 말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다던데요?

지허스님 : 스님이 차 좀 마셨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되겠나. 차가 성분이 좀 차갑긴 하



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나도 몸이 차거운 소음(小陰) 체질인데, 그래도 평생 차를 마셨으니 진작 죽었게! 다만 변질된 차만 안 마시면 되는 거여. 그런 차를 마시면 급속도로 몸이 차가와 지는 수가 있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도은 : 스님만이 느끼시는 차에 대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허스님 : 뭐, 나만 느낀다는 것보다도, 우리 동양 사람은 맑은 것을 좋아해. 차 맛은 아주 단백하고 청량하지. 차가 아니고는 이런 맛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느낄 거여.

도은 : 혹시 차에 대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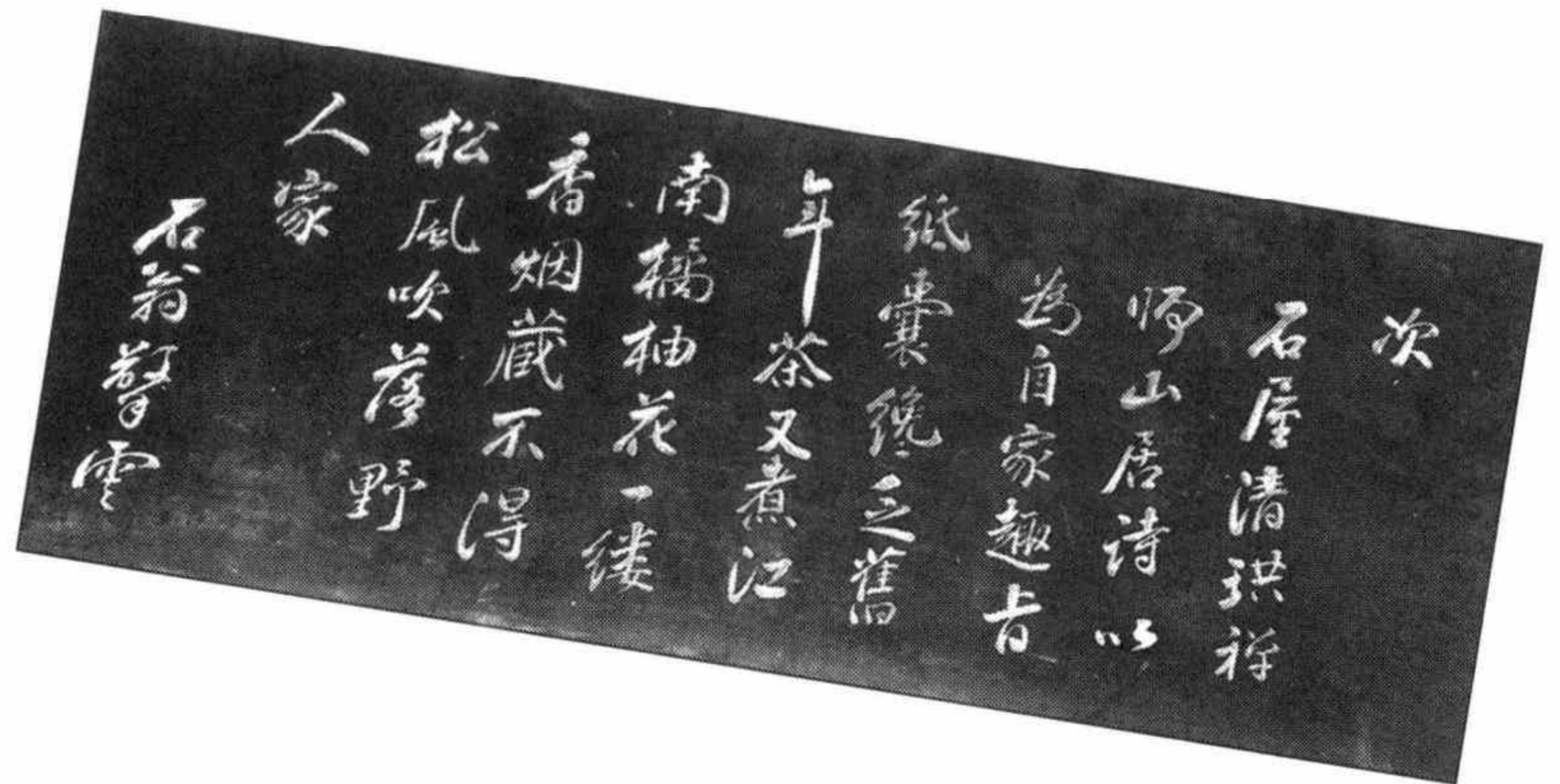
지허스님 : 안 그래도, 문화체육부에서 차에 대한 책을 써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하는데 아직 안 했던 이유가, 수행자가 책을 쓰고 내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데, 하도 독촉을 해 와서 쓰긴 써야 될 입장이지... 주로 차나무 생태를 사람들에게 알려줄려고 하지, 뿌리는 왜 제 키의 서네 배씩 내려가는가? 왜 다른 꽃이 다 저 버리는 동지섯달에 꽃이 피는가? 꽃핀지 2년만에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차나무에 대한 설명과 차를 만드는 방법들을 쓸려고 해. 지금 일본식이 들어와서 절집까지 엉망이거든.

도은 : 차와는 무관하지만 스님의 출가 동기가 궁금합니다.

지허스님 : 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출가를 했지. 집안에서는 진학을 하라고 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 일것 같았고... 내가 중학교 다니던 때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애. 나도 두세 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많이 읽었지. 소설 카뮈니, 사르트르니, 키에르케고르니, 야스퍼스 등 서양 철학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자연히 허무주의로 흐르게 됐어.

그야말로 제행이 무상이여.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여.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죽었어. 無자 세 개를 남겼지. 세상은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뜻이겠제.

결국 화장을 하게 됐는데 다른 건 다 타고 허리띠 바클만 안타고 재 속에 남아 있던 말이여.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허무하고 허무하



더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애.

막연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승주 동화사 주지 스님을 찾아 뵈게 됐어.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오느라고 고생했다. 푸른 하늘을 봤냐?" "예, 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봤냐?" "예, 봤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본다는 것이 네 마음이다" 하시는 거여. 그 말씀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을 가야겠다'하고 다짐을 하게 됐지.

도은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스님께서서는 '茶에 대한 이야기를 禪으로 표현한 글'이라 소개하시며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현판을 내려 놓으시고는 한자한자 새겨주셨다.

石屋清珙(석옥청공)스님의 山居時(산거시)로 우리집안의 宗旨(종지)로 삼겠다.

종이 주머니의 조금 남은 해묵은 차와 강남의 굴나무 꽃을 함께 다리니 한 줄기 향기로운 연기를 감추지 못해 솔 바람 불어서 들 사람 뜨락에 퍼지는구나

-石翁警雲(석옹경운)-

본연스님께.

스님께 편지 쓰는 것이 처음이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광사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친구들은 많이 가 봤다고 하기에, 조그마한 사찰 인종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절이더군요. 그리고 큰 법당 안에 부처님상은 정말로 자비로운 모습이어서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절에 다니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 부처님 오신날에 몇 번 간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불교에 대한 역사학, 자비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종교학 모두 자비학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성당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때 절하는 법을 정신없이 배우느라 제대로 익히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차분하게 배우고 싶어요. 성당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손 모으고 하면 되지만 항장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더군요.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내려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학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한 신을 숭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에 따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종교나 철학에 대해 공부하여 그것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소풍이나 견학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스님께서 불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만 죽입니다.

건강하십시오.

1996년 4월 14일

반성 종합 고등학교 1학년 2반 이 순례 옮김.



본연스님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4월 12일 송광사에 소풍을 다녀간 반성 종합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 중 박 영미라고 합니다.

스님, 그 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절에서 갖춰야 할 올바른 예절도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옛날에 절에 다녔는데 그때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보고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절에는 아주 오랜만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정말 온 마음의 티끌과 죄악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구요.

스님, 다음에 또 송광사에 들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정말 바르게 인사도 하고 절도 해보고 싶어요.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 영광이구요.

스님, 이만 편을 놓을게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1996년 4월 14일

진주에서 어느 한 소녀가 본연스님께!

4월 12일 사찰 소개를 받은 진주 반성 종합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그중 두편을 소개합니다.

# 아름다움을 꿈꾸나요?

재무/보경

80년 光州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대.

.....

광주에 나갔던 어느 날 금남로에 사람이 많았다.

영화를 찍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협조하고 있어요.

.....

스님, 모처럼 영화 한 프로 봅시다. '꽃잎'

난 별로.....

잘 만든 영화라는데 한 번 봅시다.

아주 친한 도반스님의 성화여서 지난 선거일 光州에서 영화를 봤어. 무슨 일이건 그때 그 자리의 역사성이란 당사자에게 너무 힘든 기억이라 되살리기가 싫은 법. 난 광주를 감당 못하기 때문이라네.

· 저 정도로는 너무 약해

· 저런 방식으로 광주문제를 얘기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소? 주제도 미약하고, 의도도 불충분해.

별론데!

· 아주 시원하게 슈워제네거가 진압군을 쓸어버린달지, 저항군 수뇌부의 긴박함, 뭐 그런 것도 재미있을 텐데.

· 배우들 연기도 어째 어색하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고는 “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괜찮다던데 나온 김에 보고 가시오.”

난 이 영화를 본적 없지만.....

생각이 많아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얼마나 가슴아픈가. 심한 독설, 때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 난 그때 무수히 봤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 총칼 앞의 無力한 영혼들. 나약함은 수치스럽게까지 해. 이세상의 질곡은 가혹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름다움을 꿈꾸지. 그 아름다움이란 뭇기에 우리 그토록 절대의 美를 추구하며 꿈꿀까. 아마 그 아름다움이란 존재를 송두리째 흡수 할거야. 보는 나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지겠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현상만 찬연하고.....

죽어도 좋을 행복감에 젖겠지, 그 아름다움 앞에 존재의 유·무는 하찮거든. 그런, 영혼을 후려치는 아름다움을 우리 몇 번이나 봤을까?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을걸.

난 하나 꿈을 수 있지.

타지마할!

상상력이란게 우리가 경험해

아는 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다 해도 실물의 타지마할이 주는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지. 그 아름다움이란...

절묘한 건축, 나른한 인도의 햇살 아래 눈이 감기고, 숨이 멈춰서고, 어둠이 내리듯, 깊은 잠에 빠져들 듯.

아! 나는 新天地의 初有한 사람. 독수리보다 높이 날고 잉어보다 재빠르며, 구름이 되고, 땅이 되고 ...

사자한의 지독한 狂氣!

·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金閣寺'가 있지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금각사만 못해, 금각사가 최고란다.'

그래서 美에대한 총체적 이미지는 금각사로 여기며 자란 어린 소년이 스님인 아버지가 죽고 금각사 주지스님에게 맡겨져 금각사를 매일같이 보고 ...

한자리에 변함없이 있다는

그 安定感은 신뢰와 흠모의 情을 갖게 됨을 유명화가의 수채화 한 점을 소장하게 되고는 느꼈음. 보고 또 보고. 아침에



도, 저녁에도, 달밤에도, 비가와도, 말없이 한밤에도 든든한 어른처럼, 연못에 비친 황금빛 법당, 그러다 자라서 주지스님 눈 밖에나 절을 떠나기로 맘먹고 는 고민하지.

저 법당!

내 존재 이유는 바로 저건데

저걸 두고 떠난다는 건 견딜 수 없지. 내가 송두리째 다 가질 수는 없을까.

· 소멸시킴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것

· 태우자!

불을 지르지.

이 세상을 아파하고 번민해 본者, 이 자체로 최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의 땅을 꿈꾸지 않는가. 우린 세상으로부터의 outsider!

세상 사람보다는 더 그곳의 행복을 소원하고 存在의 화목을 설득하지. 이런 열정이 스님들만큼

강하지 못할걸.

선방 앞 수선화가 피는 계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허무하도록 나른한 봄햇살로 죽해.

千山萬山에 봄꽃 가득.

#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지운/강주

-目 次-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1)

깨침에 있어서 말이나 문자의 역할은 지대하다. 깨달음의 경지를 말이나 문자로 표현한 것이 경전이나 논서, 조사어록이다. 이를 통틀어 '教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조사의 가르침을 '教'의 범주에 넣는 것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의 가르침이라도 언어문자의 영역이라면 역시 교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禪法門이나 禪問答의 경우에 언어문자라하여 '禪'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佛教'라하듯이 보조스님께서서는 祖師의 가르침을 祖教라고 설하셨다.<sup>1)</sup> 이와 같이 法이 말이나 문자로 표현되는 영역을 教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禪은 言語나 文字以前의 영역이지만 教와는 밀접한 관계이다. 教는 法의 言語化이므로 언어나 문자가 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언어문자 以前의 세계로 마음

1)《真心直說》「真心異名」曰佛教祖教. 立名不同. 且佛教者. 菩薩戒. 呼爲心地. 發生萬善故. 般若經喚作菩提. 與覺爲體故. 華嚴經立爲法界. 交徹融攝故.---- 祖教何如. 曰祖師門下. 杜絕名言. 一名不立何更多名. 應感隨機. 其名亦衆. 有時呼爲自己. 衆生本性故. 有時名爲正眼. 鑑諸有相故. 有時號曰妙心. 虛靈寂照故. 有時名曰主人翁. 從來荷負故.”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1990년 p. 四-七一六中)

이 高揚되면서 마음이 깨어나 妄念이 사라져 생각以前의 無念(究竟覺)으로 나아간다면 이 영역은 禪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또 법과 깨침이 相應하게 하는 '禪問答'이라는 행위자체는 그대로 수행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문답과 같은, 말이나 문자에 의하여 말해지는 교법은 깨달음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물론 조사어록에만 문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전이나 논서도 마찬가지이다. 《金剛經》의 例를 들어보자.

그 내용은 부처님과 수보리존자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문답은 언어이므로 교이지만 그 문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말이나 文字以前의 소식인 법의 세계이고, 그 법의 나타남과 상응하여 아녹보리인 깨달음이 나타나므로 禪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看話禪을 말할 때, 話頭를 참구하는 것만이 간화선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간화선의 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學人이 禪師와 문답하는 것도 간화선의 영역이며 간화수행의 중요한 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답을 통하여 바로 깨친다면 화두를 참구할 필요가 없지만 깨치지 못하여 의심만이 남는다면 그 의심을 참구하는 것이 화두참구가 되는 것이다. 선문답이야말로 깨침의 첩경이며 선문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간화선법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

또한 선문답이 언어인 이상, 이 언어가 중요한 수행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법문하는 것을 듣고 깨치게 되는 것도 언어라는 사실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특히 이 언어는 법의 언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법

인 진리(법)를 깨닫게 하는 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법과 수행, 즉 수행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좀더 논구해 볼 필요가 있다.

## (2)

현대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낡은 사고와 기존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PC통신(인터넷)등으로 인해 하나로 묶이면서 세계는 한 울타리로 연결되어 '정보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정보의 속도가 기존의 지식 세계를 급습하면서 대부분의 지식은 몸에 감각되기도 전에 새로운 지식에 의해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

현대에는 누가 필요한 새 정보를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 삶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의 삶은 정보의 신속한 처리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이고, 喜悲와 美醜와 大小와 損益과 승리와 패배가 좌우되는 틀속에 살게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수행자는 왜 직접 세간 사회속에 뛰어들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으며, 중생이 살아가는 현장을 기피하거나 도피하는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행자는 온갖 정보 속에서 살면서도 정보 以前의 소식을 추구한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더라도 인간 개인의 문제나 지구 환경,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있

다.

이렇듯 정보가 다양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해결 방법인 언어이전, 즉 해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하는 길이요, 법칙인 것이다.

그것은 정보(지식)나 언어문자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하는 장애를 지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의 총체인 언어문자부터 해부해 보자. 언어문자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언어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을 수행에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3)

언어문자는 어떤 성격과 본질을 지니고 있을까? 이 문제는 求道하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개개의 언어는 상징하고 있는 의미의 독자적 체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의미론적 면적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지만, 문제를 끝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 나라의 언어가 단어라는 수단에 의하여 그 경험을 분류하는 체계가 모두 독자적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언어는 경험의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경험의 조각 그 자체가 매우 중추적이며 상관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미꽃을 꽃이라는 말로 지칭했을 때, 장미보다는 꽃이 더 넓은 영역을 가진다. 국화, 민들래, 매화 백일홍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꽃의 종류로 눈을 돌리면 의미의 영역은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다른 문법적 부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sup>2)</sup>, 사건<sup>3)</sup>, 추상<sup>4)</sup>, 관계<sup>5)</sup>라는 네 개의 공통

2) 대상이란 사건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실체 혹은 사물을 지칭하는 의미론적 부류를 지시한다. 집, 개, 사람, 태양, 작대기, 물, 정신 등이 그 예이다. 문법적으로는 명사에 해당한다.

3) 사건이란 행위, 관정, 일어남을 지칭하는 의미론적 부류이며, 뛰다, 달리다. 말하다, 자라나다, 죽는다, 빛나다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문법적으로는 동사에 해당한다.

4) 추상이란 대상과 사건, 그리고 다른 추상의 질과 양 그리고 정도를 지시체로서 갖는 표현의 의미론적 부류를 지시한다. 예를 들면, '빨갳다'는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독립된 실체가 아닌 성질일 뿐이다. 그것은 '빨간 모자' '빨간 실'에서와 같이 어떠한 대상에 내재하는 성질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빨리'라는 부사도 '빨리 뛰다'에서와 같이 어떤 사건의 성질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념적으로 추상되고 명령되어질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5) 관계란 모든 술어들 사이에 의미와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관계는 보통 接辭에 의하여 표현된다. 영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접속사와 전치사이다. 또 많은 다른 언어들은 접두사나 접미사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6) '翻譯의 理論과 實際' 나이다 그리고 타버 지음, 金容沃 옮김. p.p. 211-213. p.p. 245-247 참조.

"도올 논문집" 통나무 1991년

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sup>6)</sup>

이와 같이 이 네 개의 범주에 의하여 경험의 전 우주가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활동을 戲論이라고 하지만 세간은 이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존재를 보는 시각으로 世俗諦와 眞諦로 나누어 보는데 세간은 바로 이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모든 것도 심지어 歷史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하나의 말이나 문자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사회적약속이나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말이나 문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의 말이나 문자는 각기 의미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각기 체계나 체제를 가진 사상적, 경험적, 역사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상이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고 의미론적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대학과 강원의 이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명칭과 내용문제로 작년 실상사에서 있었던 선우도량 제9회 수련결사 세미나에서 격렬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다. 문제는 대학이라는 의미면적과 그에 따른 체계가 있고 강원이라는 의미면적과 그에 부합한 체계가 있는 법이다.

대학이라는 체제에는 포살이나 간경, 참회 등의 계, 정, 혜 삼학의 수행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예불, 상강례, 포살, 간경 등은 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식이면서 수행체계가 기도하다.

그런데 강원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강원이 가지고 있는 체계나 체제가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강원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도 강원이 가지고 있는 승가본연의 수행체계와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나 강원과 대학의 의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명칭문제로 작년 실상사에서 있었던 선우도량 제9회 수련결사세미나에서 토론했던 문제인데, 강원을 승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강원을 운영하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승가대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강원이 대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학체제를 도입하여 운영되다보니 수행체제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4)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을 말하라면 말이나 문자보다 더한 과장은 없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에 의하여 온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는데, 말이나 문자의 과장은 현재에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미래까지 그 영향력을 가진다. 즉 윤회하게 되는 원동력으로써의 業이 언어문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唯識說에 의하면 業種子에 의하여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 업종자는 곧 언어문자에 의해 생긴 名言種子라는 데에서 말이나 문자의 과장이 因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生死苦의 因果임을 볼 때, 구도하는 수행자들은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설사

과거의 수백년 수천년 전의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날에 읽힌다 하더라도 수백년 전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읽고 있는 이 순간일 뿐이다. 지나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도 오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 순간도 강물처럼 머물지 않으므로 실체로서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의 역사를 비판하거나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이 시점에서 사실같이 느끼고 인식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만이 아니다. 말이나 문자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할 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경험이 마치 실제처럼 인식되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실재와 언어문자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에 의한 경험의 총체는 늘 고정되어 있지만 경험의 대상인 실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흰 찻잔이라는 말과 흰 찻잔 자체는 별개의 것이다. 흰 찻잔 자체는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진다. 그러나 흰 찻잔이라는 말은 지칭된 그 찻잔이 눈 앞에서 사라지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흰 찻잔이라는 말에 의한 경험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찻잔이 희다는 색깔의 이미지 때문에 흰 찻잔이라는 사물을 흰찻잔이라고 인식하더라도 흰색이 찻잔은 아니다. 거기에는 형태와 찻잔 자체의 열에 의하여 구원된 흙과 찻잔 표

면의 거침과 섬세함이라든가 찻잔을 받치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찻잔을 비추고 있는 빛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하나의 흰 찻잔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실은 이러한 모든 것이 인식되지 않고 그 때 그 상황의 한 부분만이 흰 찻잔의 전체로 부각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색 부분만이 찻잔이라 할 수 없고, 그 형태 하나만을 들거나 또는 흰색과 형태만을 찻잔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흰 찻잔이라는 말을 통하여 인식하고 경험되는 흰 찻잔의 현주소는 不明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과 사물의 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언어 문자와 사물간의 일치를 위해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단 논법이나 기호 논리학이 발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어문자의 세계가 우리의 총체적 경험을 담은 것이고 의미론적 체계를 갖추어서 세계를 설명하더라도 본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언어문자의 문제점을 언어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의미는 실재와 전혀 다른 꿈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남보타사를 다녀와서

지운/강주

중국 방문 한날이 대만의 총통직선에 즈음하여 군사훈련으로 廈門市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던 때여서, 처음부터 불안한 출발이었다. 송광사를 대표하여 우리 일행 네명은 三月十四日 김포공항을 떠나 중국 上海에 도착하여 하문시 남보타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이산 永樂禪寺에 들렀는데, 영락선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작년 12월 20일에 방장 묘담화상께서 입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 자신했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복건성 하문시 남보타사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인 十九日 송광사와 남보타사의 友好寺院으로써 인연을 맺었다. 여기에는 그만한 소중한 인연이 있다. 작년 여름으로 기억된다. 화엄사스님으로 북경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정암스님께서 송광사 법성요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문시에 있는 남보타사의 방장 묘담화상께서 송광사 보조스님의 저술인 修心訣을 보시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수만권을 인쇄하여 유포하고 남보타사 禪院의 선수행의 지침서로 삼고 지도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매우 기쁘고 희유한 소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암스님의 말은 묘담방장스님께서 책자를 보여주시면서 보조스님의 사진이 희미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거든 송광사에 들려서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스님의 영정사진 필름과 보조전서 한권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었던지 그해 十一月頃 初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족스님인 古道스님께서 묘담화상의 편지를 주인없는 방에 두고 간것을 알았다. 그리고 주지스님 면담을 하고 갔다는 말

도 들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知雲法師慈鑒

收到貴寺贈送的《普照全書》及普照禪師德像，非常高興，特致謝。我非常仰慕普照禪師，曾印《修心訣》數萬本流通，使習禪者，能領悟心要，有所得益。今聞普照禪師開創的松廣寺，現猶禪風日盛道風遠揚，現欲與南普陀寺結爲友好寺院，相互參學交流，這是具有歷史意義的，今懇請法師等能光臨南普陀寺指導，敬頌禪安

一九九五年十月三十日 妙湛 和南

지운스님 자비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사에서 증정하여 보내주신 보조전서와 보조선사의 덕상을 받아보게되어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특별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보조선사를 매우 존경하고 흠모하여 일찍이 수십결 수만권을 영인하여 유통시켜, 이 인연으로 참선하는 사람이 능히 心要를 깨닫고 이익이 있도록했습니다.

지금 소식을 들으니 보조선사가 개창한 송광사는 현재 선풍이 날로 성해지고 道風이 멀리까지 드날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보타사와 송광사가 결연을 맺어 우호 사원이 되어 서로 참학하고 불법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사스님들께 간청하오니 남보타사에 광림하시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선정삼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0월30일 妙湛 和南

이 문제를 주지스님과 상의하게 되었고 또 방장스님의 제가를 얻어서 남보타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주지스님과 함께 십이월경에나 가고자 했으나 주지스님의 일이 너무 많아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寺中스님들을 대신하여 심부름하기로 하고 동안거 해제 때를 맞추어 중국에 한번 다녀오기로 했던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강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보타사의 佛學院의 체제나 공부방식 등등 관삼사가 많이 작용하였다.

三月十九日 오전 환영식을 겸한 結緣式에는 송광사 방장 회광승찬스님의 "三界唯心"의 글씨한 폭과 조계총림 송광사 수선사의 이름이 세겨져 있는 죽비를 건네주고(사진은 왼쪽부터 理文스님, 나, 本如스님 宗教局 사람, 원해스님, 정화스님, 仁參스님). 남보타사 주지격인 理文스님께서 송광사 방장스님에게 전해주라는 弘一律師의 寫經한 경전을 받았다. (그런데 고도스님의 통역을

통하여 홍일스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경을 항공우편으로 붙여주기로 했으나 아직 송광사에 도착하지 않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도스님, 본여스님, 이문스님, 나, 종교국 직원) 南普陀寺의 스님들은 송광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오후에 서로 禪院과 佛學院, 그리고 慈善事業基金會에 방문해주기를 바라므로 午後 二時에 먼저 禪院을 방문했는데 禪院長은 仁參스님으로 禪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다. 선원에는 서너명의 스님들이 좌선하고 있었고 선원의 구조나 入禪과 放禪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 (사진은 왼쪽부터 해여스님, 인삼스님, 나, 정화스님, 본여스님, 원순스님, 원해스님, 고도스님) 慈善事業基金會은 방장 묘담화상(會長)의 의발을 받는 本如스님(副會長)의 안내를 받았는데, 병실을 갖추고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중생교화의 현장으로 하나의 놀라움이었다.

불학원에서는 教務長 海如, 부교무장 慧然, 講師 高銘 등 여섯명의 강사스님과 우리 일행네명과 통역에 고도스님, 그리고 자선기금회의 본여스님, 종교국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대담에서 불학원 스님들의 호기심이 대단하여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대체로 그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廈門市는 싱가포르의 도시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다. 대만의 도시와 같은 느낌을 받았고 중국의 다른 도시와 다르게 新都市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스님들의 계율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계율에 대한 문답이 있었고 또 송광사 강원의 교제와 학인수, 강사의 강의방식, 체제에 묻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민은 불투명한 중국불교의 장래문제의 그 대안을 우리들에게 찾으려 하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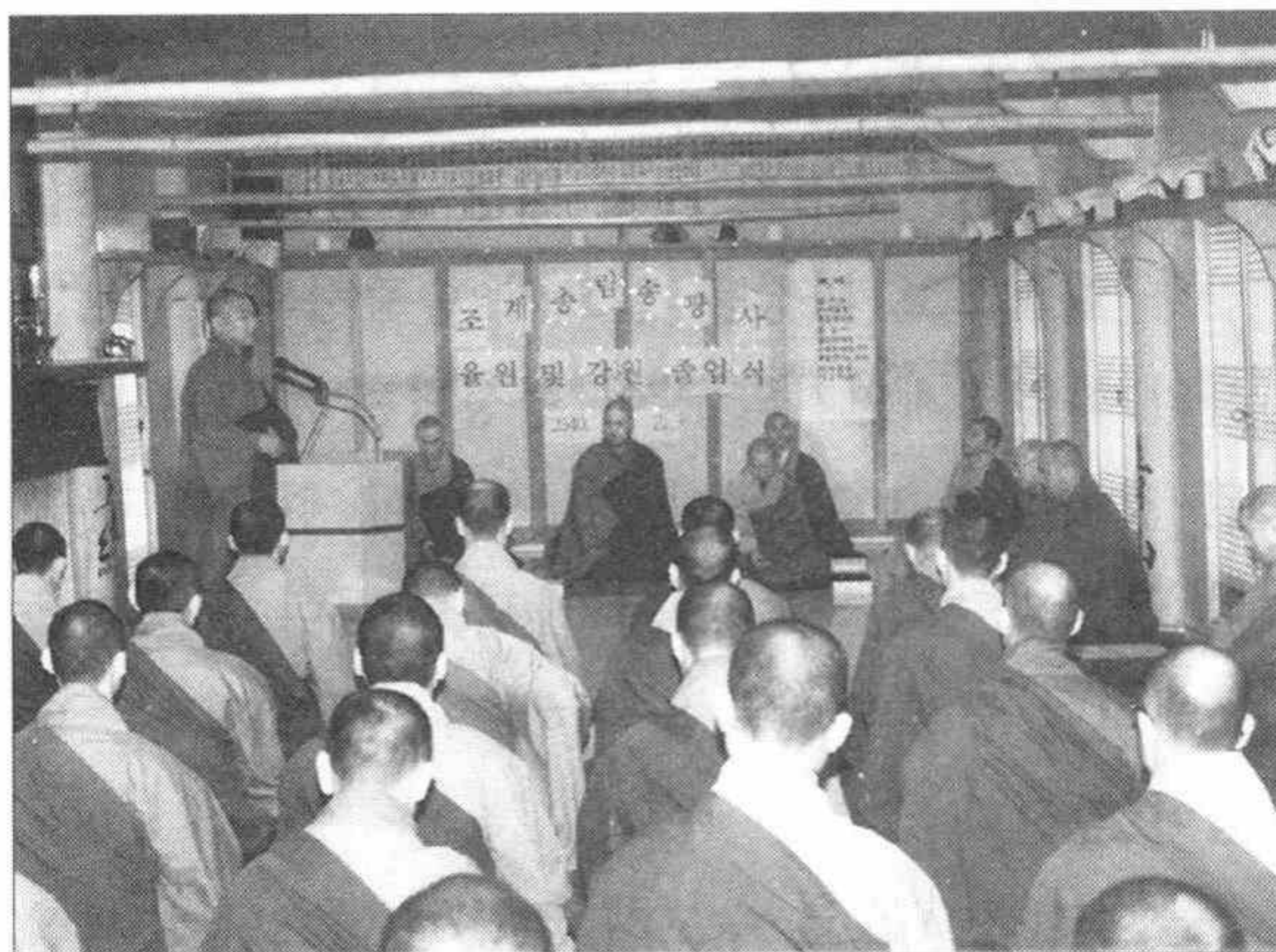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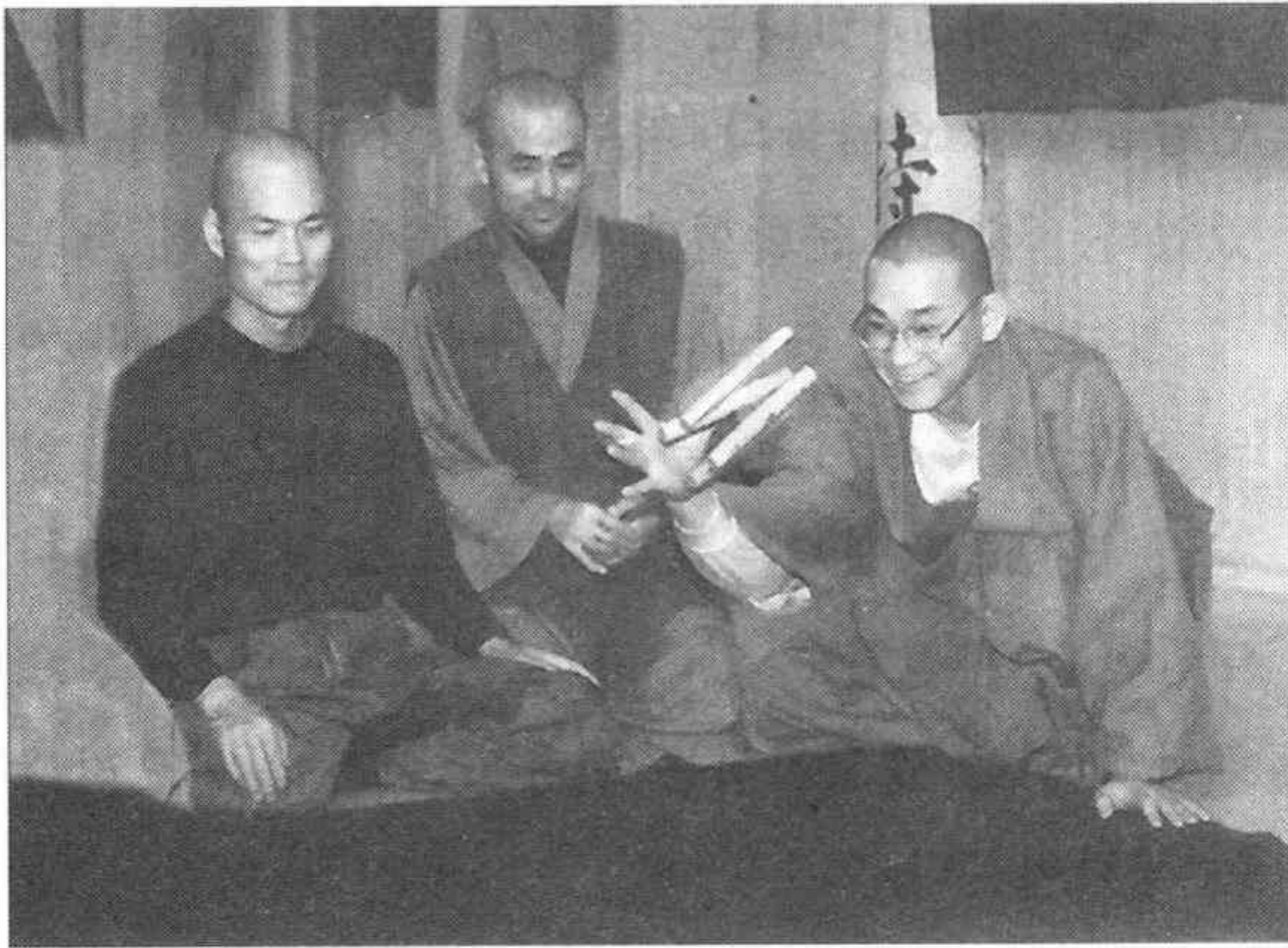
南普陀寺는 唐나라 會昌大中年間에 건립된 사찰이다. 浙江普陀山の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남보타사라 한다고 한다. 남보타사는 관음보살의 도량이고 臨濟宗喝云派의 十方叢林의 하나로, 1925년 민남佛學院이 설립되었는데 중국에는 北京 法源寺의 中國佛學院과 함께 二大佛學院이라고 한다. 민남불학원은 학인이 약 三百餘명, 강사가 30여명으로 대학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가장 큰 佛學院이다. 또 민남불학원이 설립될 당시 중국불교의 산중불교, 신비불교, 은둔불교를 개혁하고 人間佛教를 제창한 一代高僧인 太虛스님이 원장으로 부임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던 곳도 바로 이 불학원이라 한다. 그러나 중일전쟁과 1966년의 문화혁명으로 피폐한 불학원을 1989년 묘담스님이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민남불학원이 다시 부흥하여 전성기

를 맞이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남보타사 민남불학원 스님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혁명에 의해 생긴 공백 때문에 불교가 맥이 끊혀서 四五十代의 승려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중국불교를 리드하고 있는 입장인 남보타사에서는 송광사와의 교류는 하나의 대안이요 비전일수 있다고 보여진다. 우호사원으로서 인연을 맺고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인연의 맺음은 시공을 초월한 보조스님의 정해결사정신의 힘이라고 보고 싶다. 수심결이라는 한점의 因이 방장 묘담화상의 緣을 만나 重重으로 파장을 일으켜 송광사와 남보타사의 화엄법계연기의 장이 형성되는 法門이 연출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이 인연이 한국과 중국의 불교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국경을 초월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작용했으면하는 바람이 앞선다.

끝으로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古道스님과 세심한 배려와 안내를 해주신 本如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여스님께서는 송광사 방장스님에게 妙湛大和尚이 이미 원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고 송광사 방장스님께서 기증하신 墨寶와 法器(修禪社죽비)를 장경각에 공양올려서 중국과 한국불교계에 우호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중국의 길 안내와 통역을 맡아주시고 같이 수행해 주신 원해스님, 정화스님, 원순스님, 정암스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佛紀2540년 五月三日 智雲 법성요에서 씀.



### 송광사 어린이 법회 졸업식

2월 11일 : 지난해 창립된 송광사 어린이 법회(지도 법사 : 일상, 도웅스님)는 창립 후 처음으로 제 1기 졸업법회를 훈봉영각에서 가졌다. 이 법회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0여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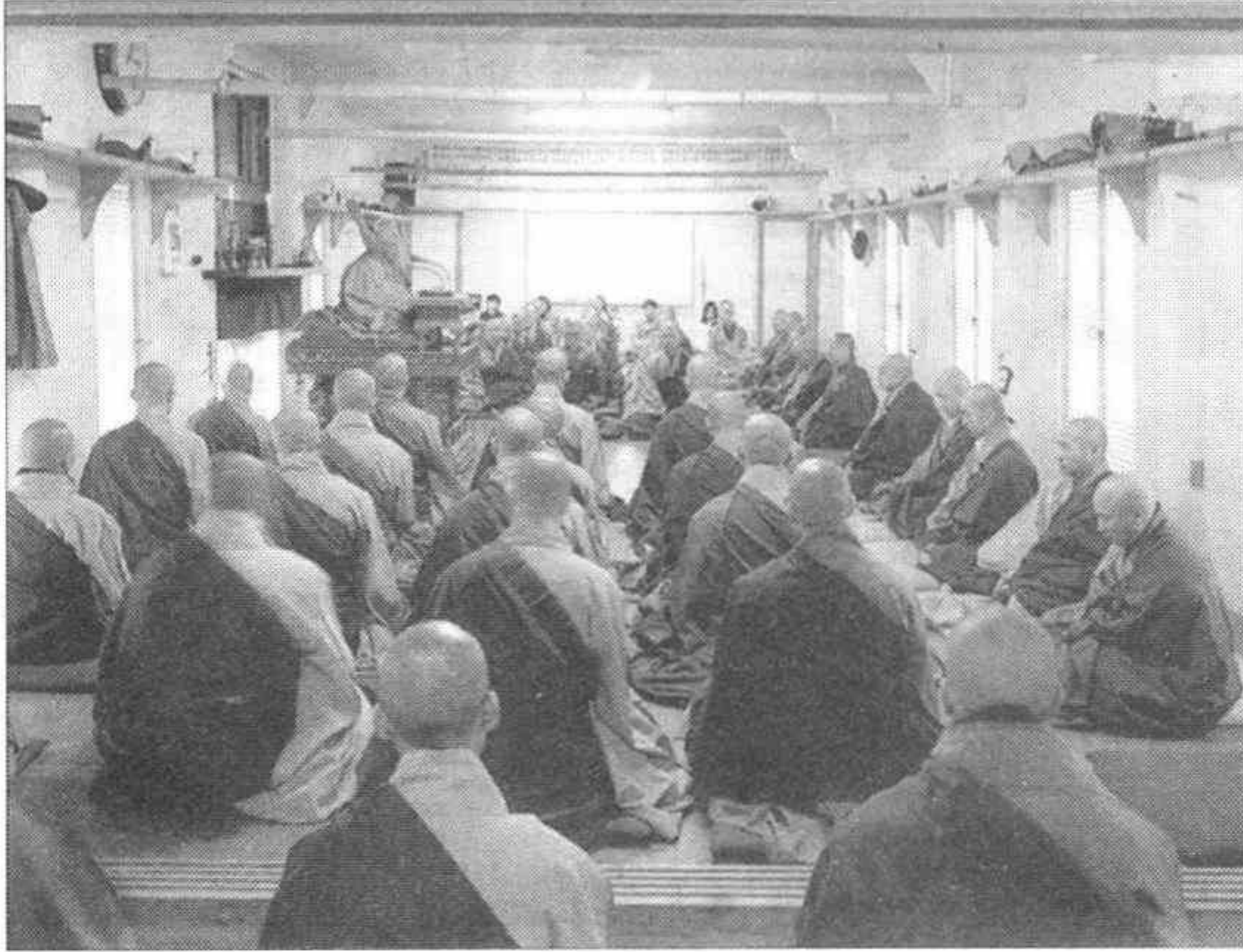
### 설 연휴 뜻깊게 보내

2월 18일~20일 : 설날 아침 예불 후 통알 삼배를 시작으로 각단 참배, 방장스님과 사중 어른신 스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으며,

저녁 예불 후에는 큰방인 해청당에서 사내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한 윷놀이 마당을 벌였다.

### 송광사 율원 및 제 6회 강원 졸업식

3월 2일 : 불교 전문 교육기관인 '율원' 및 '강원'의 졸업식이 지난 3월 2일 해청당 큰방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율원의 보명스님과 강원의 수연스님 외 4명의 스님 등 모두 6명의 스님이 졸업식을 가졌다.



**불기 2539년 을해년 동안거 해제**

3월 4일 : 석달 동안의 정진을 마치고 선원, 육원, 강원, 연복원 스님들이 해청당 큰방에 모여 보살계 포살 및 방장스님의 법문을 듣고 해제하여 강원은 방학에 들어갔다.

**봄 산철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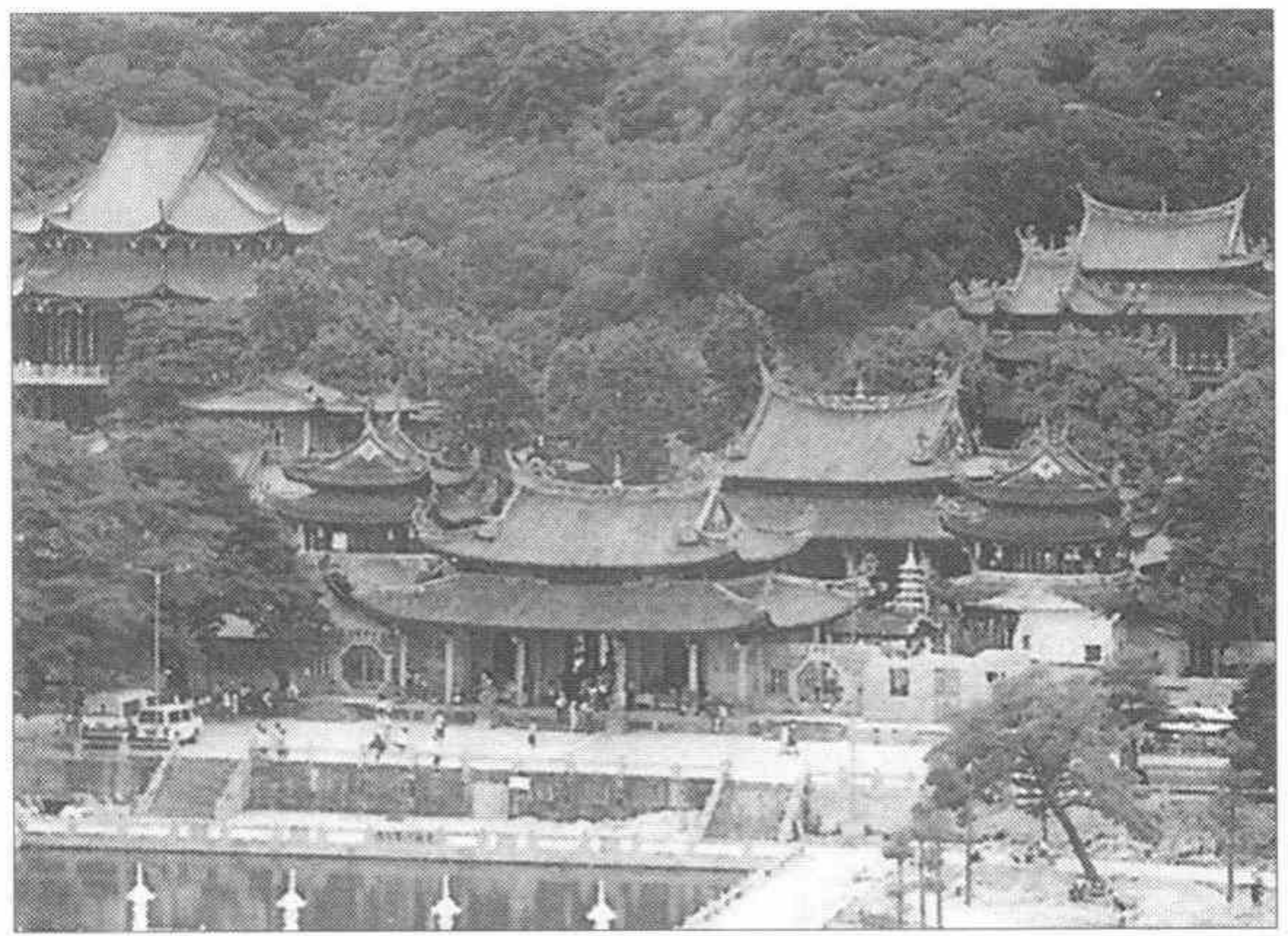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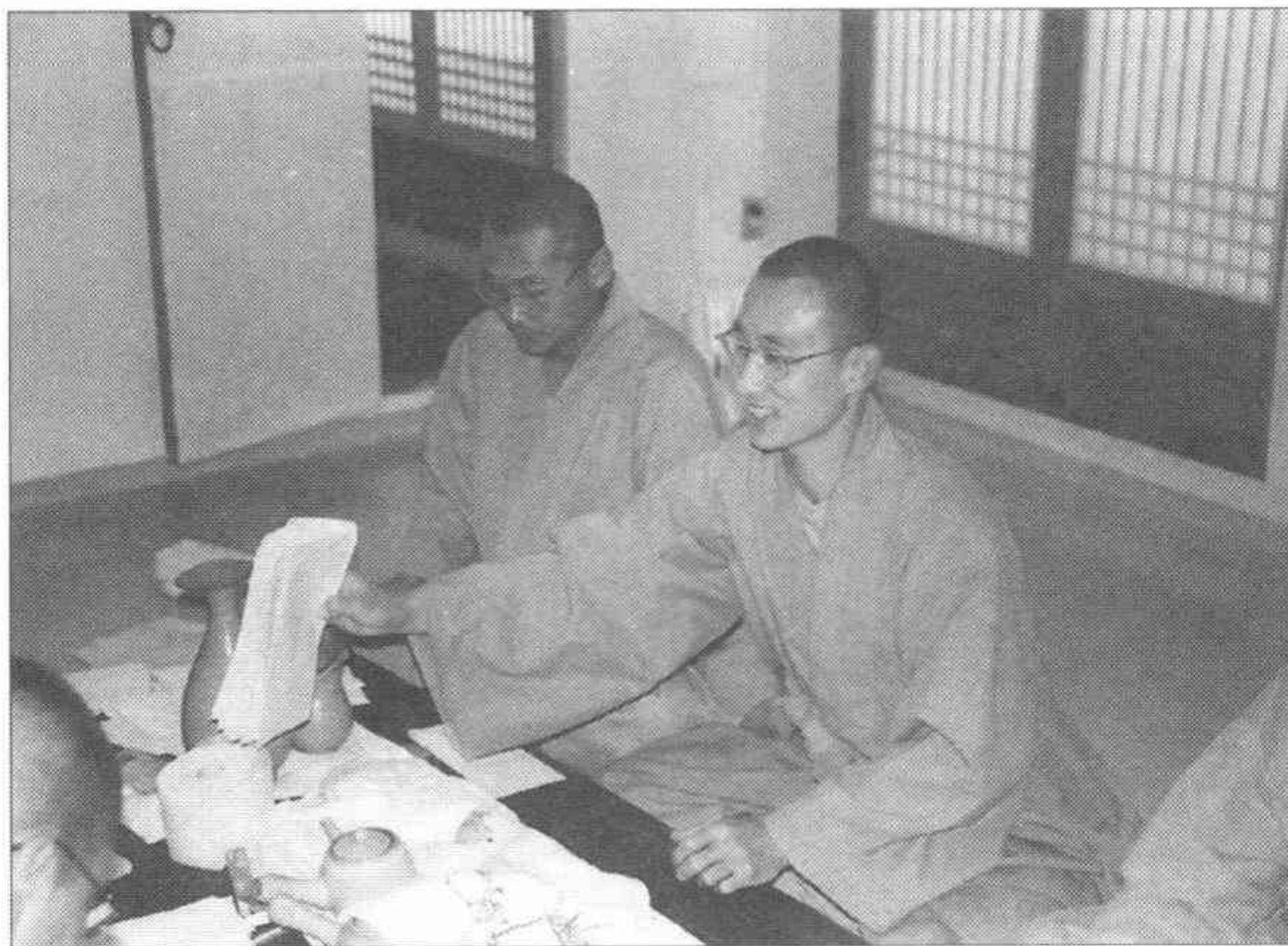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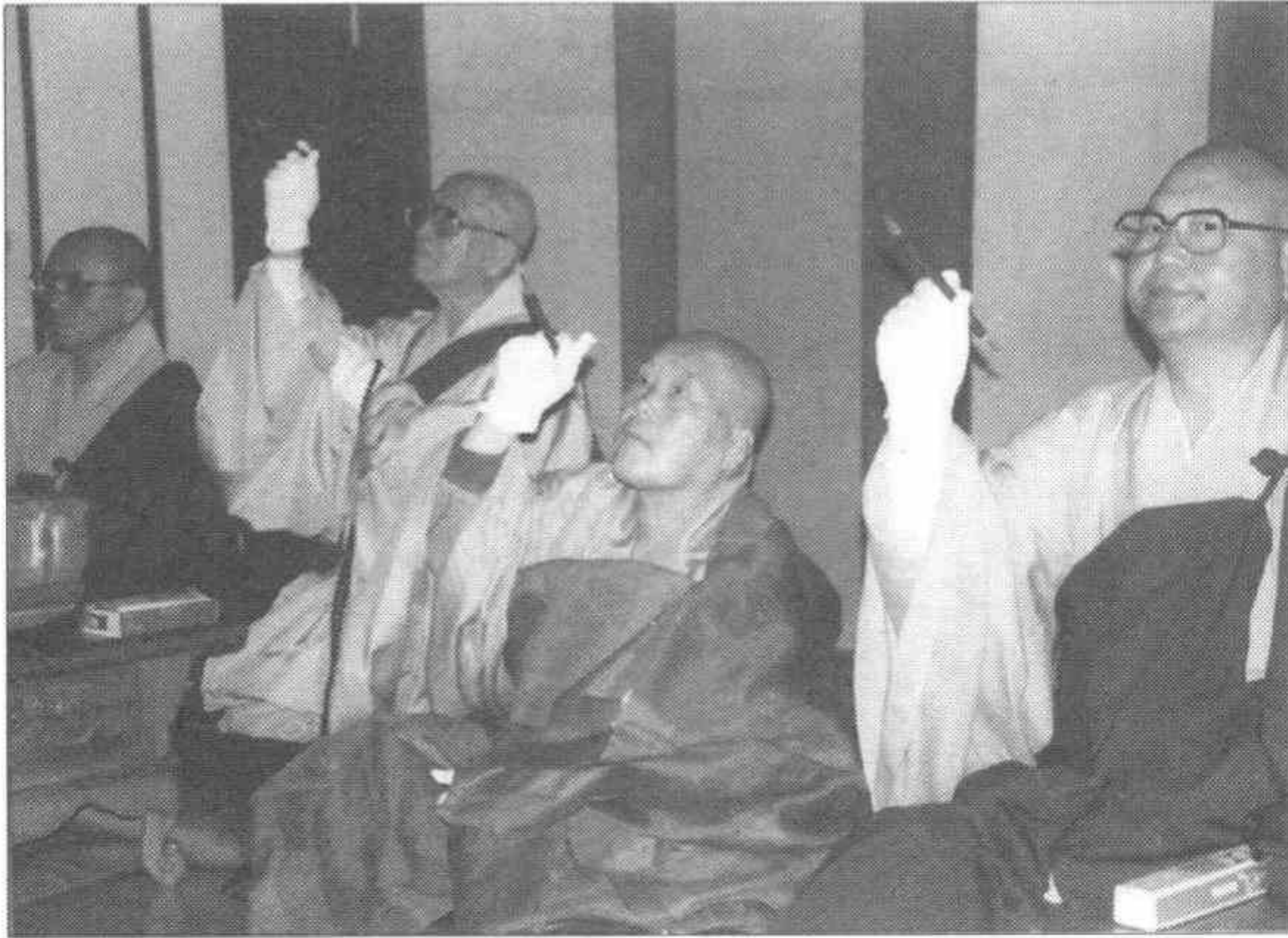
4월 1일 : 불기 2540년 학사 일정의 시작인 봄산철 결제에 들어갔다. 지난철 공부했던 스님들과 편입한 스님, 새롭게 방부등인 치문반 스님들을 포함해 50여명의 학인이 함께 정진하게 되었다.

**충무 용화사 8각 3층 목탑 기공식 동참**

4월 2일 : 충무 용화사에서 거행된 8각 3층 목탑 기공식에 다녀왔다.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목탑으로 조성되는데 목탑 측면에는 아라한 상이 조각될 것이라 한다.

**오도암 체육행사**

4월 13일 :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행사가 오도암에서 있었다.



### 법련사 삼세 여래상 점안식 동참

4월 25일 : 송광사 서욱 본원인 법련사에서 4월 25일 대웅보전 삼세여래상 점안식이 있었다. 방장스님과 원호 위원 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점안 법회에 강원 학인도 동참하였다.

### 삼월 불사 울력

4월 26일 :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 3일간 봉행된 삼월 불사를 앞두고 행사준비를 위한 울력이 종무소에서 있었다.

### 친선체육대회

5월 3일 : 이음 운동장에서 선암사 학인 스님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축구경기를 가졌다.

### 중국 남보타사 방문

3월 14일~3월19일 : 강주(지운)스님께서는 3월14일, 중국하문시에 있는 남보타사를 방문하여 우호사원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 작은 정성 큰 기쁨!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창 응석을 부리고 꿈을 키울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무게를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11(예금주 : 소년소녀)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541-930)  
송광사 강원 내 노휴스님  
☎(0661) 755- 5302

주위에 도와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 비전(碑殿) 일기

대교/보원

이번 산철부터, 보조스님의 탑비와 역대 선사스님네의 부도가 모셔져 있는 비전에서 살게 되었다.

집이 낡아서 비가 오면 몇 군데 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울 너머로 끝간데 없이 펼쳐진 대숲과 도량을 둘러친 돌담, 매화, 앵두, 자두 그리고 모과, 살구, 감나무 등 온갖 보배들이 비전을 장엄하고 있다.

비에 있는 뜨락에 꽃을 가꾸고 돌담에 박영쿨을 올리면 금상첨화 일 것 같아 별교의 종묘상에 들렀더니, 주인이 불자라면서 참외, 수박, 토마토, 수세미 씨앗을 덤으로 안겨 줬다.

값을 치르려니까 돈으로 받지 않겠다며, 나중에 열매가 익으면 그때 한 개씩만 따서 값으란다.

다음날 아침 공양을 하자마

자 돌담 가에다 구덩이를 열 개쯤 파고 정랑에서 거름을 한 삼테기씩 퍼다가 넣은 다음 표주박과 수세미 씨앗을 묻었다. 법당 뒤곁에 널찍한 묵정밭이 있어서 삼과 팽이로 서너 평을 일귀 참외, 수박, 토마토 씨앗을 넣고, 대를 쪼개서 살을 만들어 휘어 꽂고 나서 그 위에 비닐을 씌웠다.

틈만 나면 밭에 들어가 모종을 아주심기 할 땅을 일궈더니, 도반스님들이 날 보고 ‘조계산 곡괭이’라고 놀려댄다.

틈만 나면 밭에 들어가 모종을 아주심기 할 땅을 일궈더니, 도반스님들이 날 보고 ‘조계산 곡괭이’라고 놀려댄다. 씨앗을

뿌린 날부터 물방울이 부엌에 맺힌 비닐을 손가락으로 툭툭 튕기고 싹이 올라오나 들여다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일주일이나 되도록 김새가 없어서 혹 잘못된 건 아닌가 조바심이 났는데 한 이틀 지나 살펴보니 촉촉한 흙 위로 참외 씨들이 꿈틀꿈틀 솟아 나오더니, 엄지벌레 속에서 매미가 빠져 나오듯이 씨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 떡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사흘 있다가 수박도 싹이 나오고, 지금은 손가락 한마디 만 큼씩 자랐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토마토는 종내 무소식이다.

고민 고민하다가 별교에 불일이 있어 나갔다 종묘상에 둘러 물으니, 촉을 띄워서 심었다고 한다. 그때서야 속가 어머니께서 차고 다니시던 광목 주머



### 송광사 비전

역대 고승들의 사리와 유골을 넣은 부도들이다. 절의 역사를 기록한 사적비나 개인의 행장을 기록한 비명도 많은 비전 전경.



니가 생각이 났다. 고추나 토마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앗을 물에 푼 담가 불렀다가 광목 주머니에 넣어서 속옷 속에 차고 다니셨던 것이다.

그때는 으레 그렇게 하는가보다 했었는데, 축을 띄웠냐는 말을 들으니 그 모습이 살갑게 다가왔다.

어제도 땅을 일구고 있는데, 때까치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며 감나무 가지에 앉아 눈치를 살피다가 쏜살같이 법당채 처마 밑으로 사라졌다. 좀 있다 다시 나타나 엿보길래 자세히 보니 부리에 나뭇가지가 물려 있었다. 법당채 처마 밑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녀석들이 집을

반쯤 지어 놓았다.

오늘은 발우보를 삶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찬장 안이 좀 수상했다. 쥐가 집을 지었나 해서 들여다보니 새집 속에 새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요녀석은 눈이 마주쳤는데도 꿈쩍달짝하지 않는다.

아! 거룩한 모성이여!

사람이 놀라는데 새인들 어찌 놀랍고 두렵지 않겠나 마는... 이래서 참선 경어에 '암탉이 알 품듯이'라고 했나... 비전에 와서 참 많은 걸 배운다.

방금 부엌에 갔다가 새가 안 보여서 들여다보니 새끼손톱

만한 새알이 다섯 개 들어 있다.

그나저나 올 농사가 잘돼야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도 올리고, 씨앗 주인에게 빚도 갚을 텐데.

## 토굴의 하루

사교/본연

**승**가의 생활은 대중 생활이다.

여러 스님네가 어우러져 살면서 화합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범어의 화합이란 어원을 따서 승가(상카)라 한다.

모여 살면서 상대를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생활 속에서 상대가 스승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찰이 없으면 많은 갈등을 격기도 된다.

일년 중 여름과 겨울에 각각 3개월씩 모여서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이것을 결제(안거)라 하고, 석달이 지나 해제하면 약한 달간의 만행 기간(강원은 방학)을 갖는다.

대중 속에서 석달을 살고 나니, 혼자서 살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학은 사형 스님이 걸망을 풀어놓기 위해

지어 놓은 토굴에서 보내기로 했다.

그 동안 부족한 공부도 보충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좌선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 한지도 시험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몇 권의 책과 옷가지를

**군불을 지피고 시간표를 짠 후 좌복 위에 바로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싸 들고 토굴에 가서 짐을 풀어 놓았다. 첫날은 방과 주변 청소를 하고, 군불을 지피고 시간표를 짠 후 좌복 위에 바로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2시반, 일어남.

새벽 공부는 성성하여 좋다고 한다. 옛날 스님네는 2시를

전 후하여 일어났다는 말이 생각나 2시에 알람을 맞추어 놓았다. 토굴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지 않기에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 108배로 아침 예불을 대신하고, 좌복 위에 앉아 있으면 아래 큰절에서 도량석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강원에서는 강의 준비 때문에 글공부에 쫓기어 편히 좌선할 여가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삼경 이후에나 앉을 수 있었다. 좌선을 마친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표를 바라보았다.

4시부터는 진언 공부. 지난 동안거 기간 중 특강 시간에 초청 강사 스님으로부터 능엄신주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고, 방학 때 한번 틈을 내어 해보고 싶

었다. 불법 공부는 허다한 알음 알이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을 배운 것 같다. 한 구절의 참뜻

**아궁이에 불을 밀어 넣고 방청소를 하고 나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을 알기 위해 한 생을 다 소비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수월스님은 한 평생을 천수 다라니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셨다 하고, 역대 큰 스님네도 화두 하나 가지고 일생을 참구 하셨다고 한다.

5시 30분. 아침 공양. 송광사에서는 바루공양 때문에 제법 시간이 걸리지만, 어제 점심에 남겨 놓은 찬밥에 된장국 끓여 밥을 말아 10분 이내에 가볍게 해결했다. 그리고 낙엽이 수북히 쌓인 오솔길을 맑은 공기를 마셔 가며 포행을 나서면 상쾌한 기분은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다.

8시부터 다시 진언 공부. 10시 반이나 11시쯤 되면 하루 목표(진언)를 마칠 수 있다. 처

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니 차츰 속도가 빨라지고 능숙해져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11시. 공양 준비. 토굴이지만 전기가 있어 전기 밥통에 다음 날 아침밥까지 한 번에 짓는다. 반찬을 뒤져보니 된장이 반독이나 있고 미역, 버섯, 김도 충분하였다. 된장을 풀고 미역과 버섯을 넣고 끓였더니 별미였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군불을 지펴야 하는데 나무가 부족하여 낮과 톱을 들고 나셨다. 멀쩡한 생나무는 차마 베지 못하겠고 죽어 가는 나무 몇 짐을 해다가 쌓아 놓았다. 일이 일찍 끝나서 한가하게 오솔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갔다 왔다.

2시(오후)부터는 독서. 그 동안 보고 싶은 책도 한문 공부에 쫓기다 보니 밀쳐 놓을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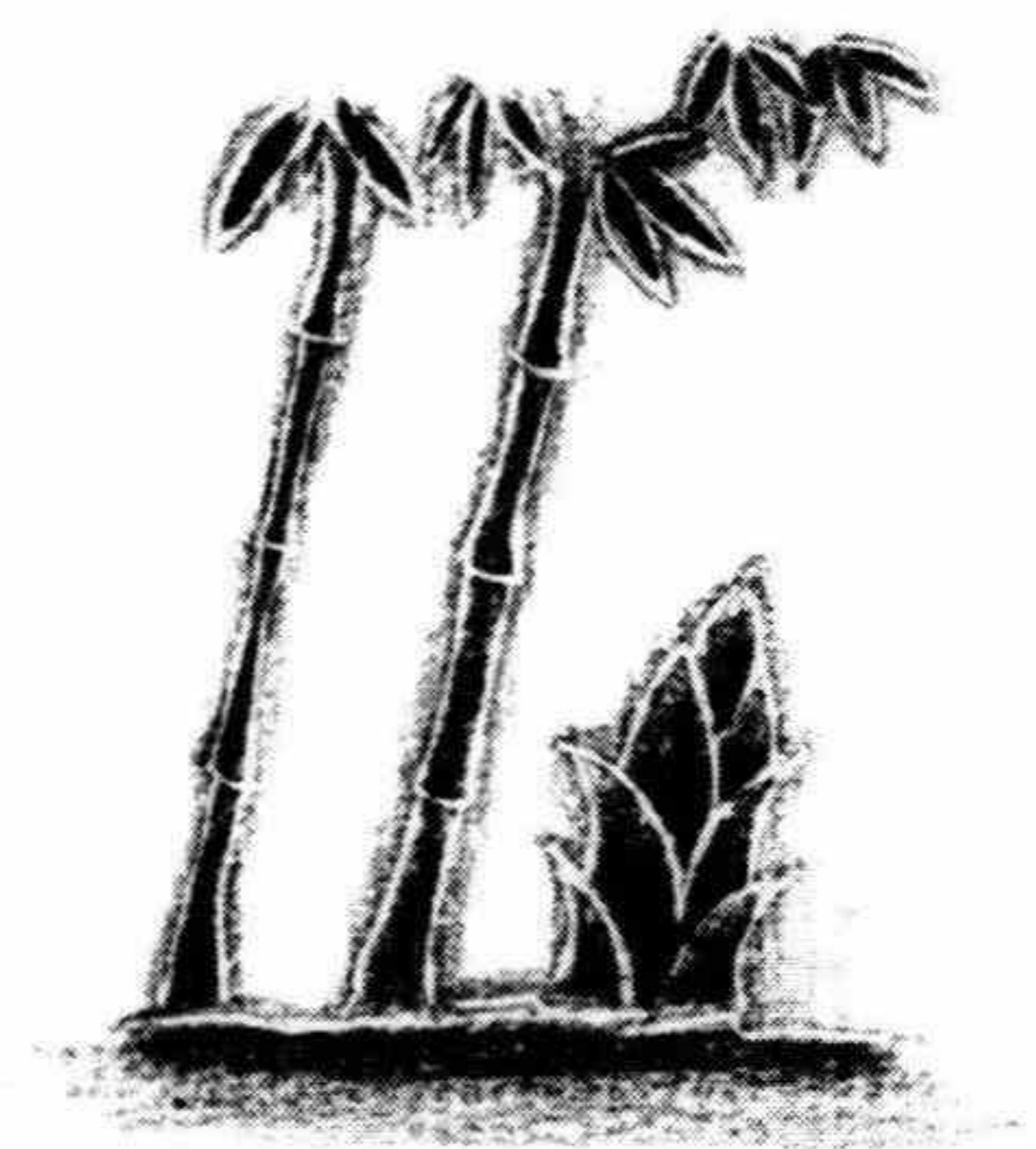
4시. 불 떼기, 청소. 산중이어서 그런지 밤에는 쌀쌀하다. 아궁이에 불을 밀어 넣고 방청소를 하고 나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5시부터는 한문 공부. 한문 공부는 좀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반복하여 훈습해야 될 것 같다. 며칠 공백이 생기면 그나마 아주 낯설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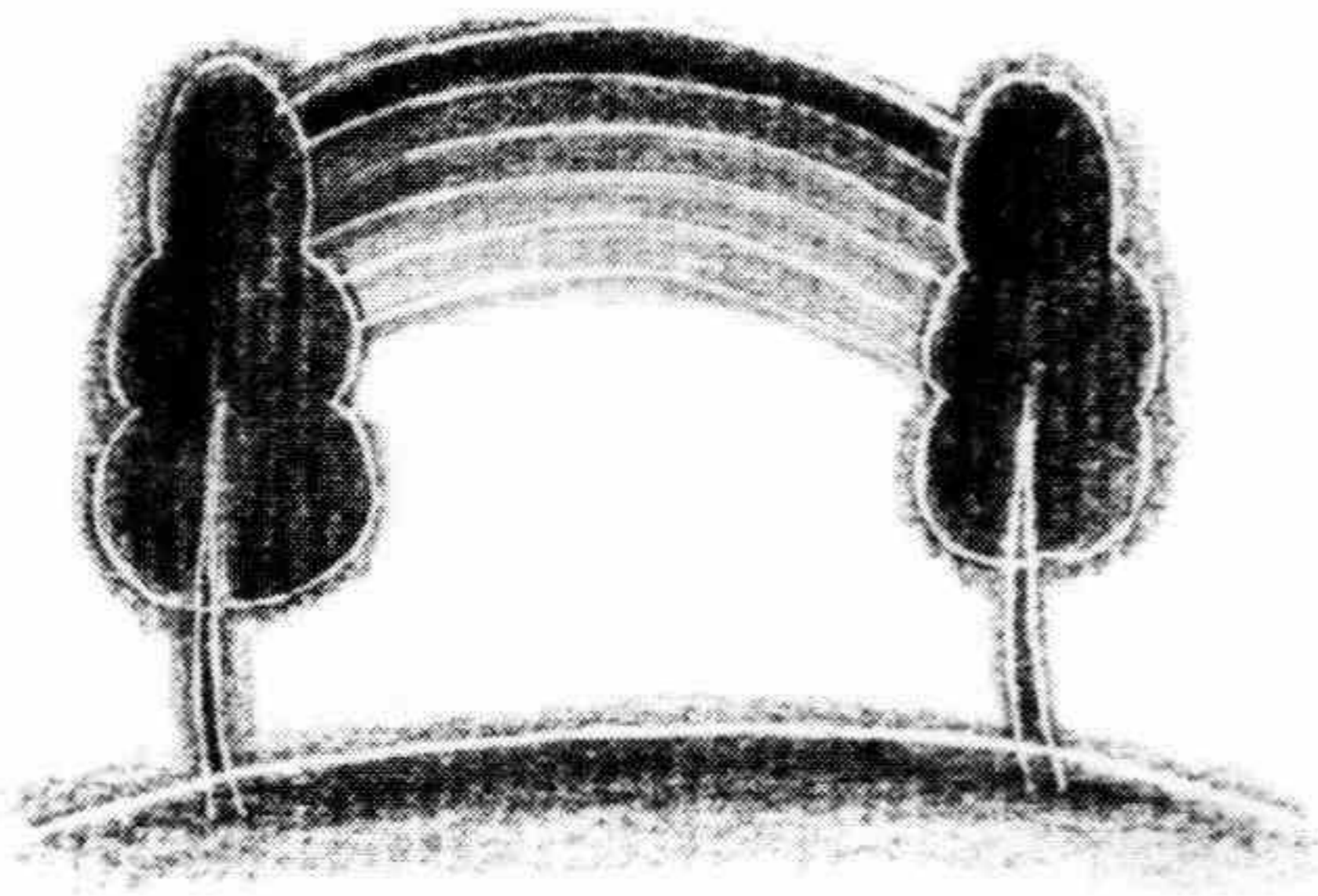
8시. 하루의 마지막 일과다. 불끄고 조그마한 소등을 켜 놓고, 좌복에 앉아서 나를 돌이켜 본다. 옛날 스님네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를 그냥 보낸 것이 한스러워 발뺀고 울었다 하는데, 업장이 두터워서인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9시 30분. 내일을 기약하며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 이런 나날을 21일 동안 보냈다. 토굴에서 나올 때 발걸음이 가벼웠다. 강원에 돌아가면 토굴처럼 묵언하고 시비 분별 앓고 지내야지 했건만, 지금도 말과 시비 분별이 여전하다.



# 행자 교육을 마치고

치문/정원



겨우내 얼어 있던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던 날, 따스한 햇살을 한껏 안으며 교육장으로 향하던게 엇그제였는데 벌써山野는 봄내음이 물씬 풍겨 오는 4월의 중순,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진달래가 피고, 뜰 앞의 목련은 수줍음을 떨쳐 버리기라도 하듯 마음껏 자태를 뽐내고, 길가에 늘어서 있는 벚꽃 향내음에 취해 버린 벌들은 마음껏 꿀을 취하고 있다.

23일간의 교육이 나에게 준 것은 너무나 많다.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 품안에 들어와 부처

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沙彌十戒를 받고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나니 가슴 저 밑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벽찬 희열이 나의 전신을 감싸 왔다.

왜! 조금 더 일찍 출가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마음에 남아 있다.

출가하기 전 재가에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었던가. 그 때 보냈던 시간과 정열을 부처님법 공부하는데 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새벽 3시 기상으로 하루 교육이 시작된다.

예불 후 백팔참회 석가모니불 정근, 사미율의 독송, 염불 및 자경문 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사미율의 강의, 울력, 기타 옷 입는 법, 마지 올리는 법 및 제사지내는 법 등을 강의 받았다. 16:40부터서는 다시 보현행원품과 일백오십찬불송 독송, 저녁 예불, 사미율의 독송, 백팔참회,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다.

저녁 8시 반이 되면 하루의 교육이 마쳐지고 취침 준비에 들어간다. 짝 짜여진 계획표에 의해 빈틈 없이 교육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一步一拜를 하던 날, 무릎에 모래가 박혀 몹시 아팠으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진리를 얻기 위해 설산에서 육년 고행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다짐하였다.

人生難得이요 佛法難逢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또한 어렵네, 사람 몸 받아도 대장부 되기 어렵다

내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스님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데 나는 장부이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今生에 成佛하지 못하더라도 충실히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 못 중생들을 교화하며 불교 증흥과 인재 양성에 나의 한 몸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하였다.

매일 절하고 무릎꿇고 經을 독송하다 보니 몸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시간 시간이 고통으로 점철되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심하게 느껴지던 통증도 점차 줄어들고 몸이 조금씩 편안해져 한 주일이 지나고 나니 교육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몸은 비록 피곤이 겹쳐 목도 쉬고 오후 불식으로 인한 배고픔이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있던 信心의 불씨가 조금씩 타

오름을 느낄 때마다 전신에서 짜릿한 전율이 흐르고 내 자신 스스로가 희열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교육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생김생김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스스로 찾아온 분들이라 모두가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威儀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거지 하나 하나를 고쳐나가고 모두가 나름대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스님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수계식 이틀 전에는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 앞마당까지

三步一拜를 하였다. 그리고 수계식 전날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삼천배를 하였다.

처음으로 잠을 자지 않고서 절을 해보았다. 비록 졸면서 절을 하였지만 절을 마치고 나니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회향을 하고 受戒를 하고 나니 밤사이 느꼈던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절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뻐다. 이제 나는 예비 승려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배우고 스님의 법도는 지키며 참구도 수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겨울의 추위도 두껍게 껴입은 외투도 다 털어 버리고 봄을 맞았다.

얼음장을 녹이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 마지막 행자 생활, 3월 18일, 일주일간의 교육은 행자 교육원의 습의 과정을 미리 배우기 위하여 행자실에서 임경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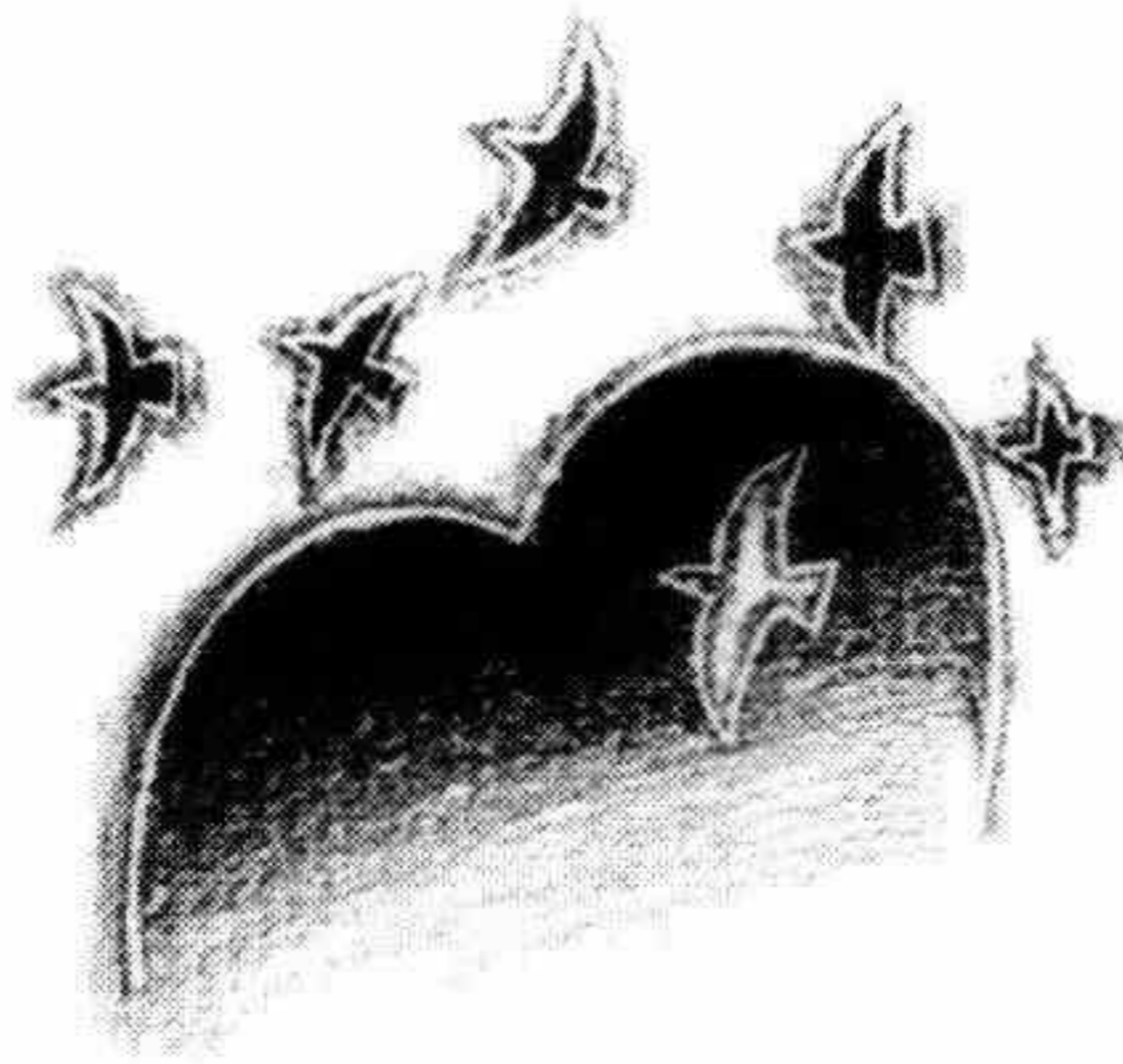
이태리에서 왔다고 하여 범명을 太利라고 한 외국인 행자님을 포함하여 7명의 행자님들이 교무스님과 강원 사집반 스님들에게 진지하지만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다.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교육원에서의 오후 불식에 적응해야 한다며 저녁 공양을 먹지 말라신다. 그러나 저녁에 배고픔을 달래려고 몰래 다각실에서 과일을 갖다 먹곤 했다.

3월 25일 9시, 드디어 다인승 승합차에 올라 교육 장소인 김천 직지사로 출발하였다. 떨리

# 행자 교육을 다녀와서

치문/보일



는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떠나 올 때 은사스님께서 “남들과 잘 화합하여 교육을 잘 받고 모나게 행동하지 말라”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차창 밖으로 출가 후 처음으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처음 발심하여 절로 향 할 때 속세의 때에 젖어 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드디어 직지사에도 도착했다. 첫날은 서류와 자격심사, 그리고 면접과 신체 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밤 몸은 피곤하였으나 긴장된 탓인지 정신이 또렷하여 밤잠을 설치고 말았다. 아침 3시 기상하여 계곡에서 세면한 후 죽비에 맞추어 108참회와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이어지는 500배 참회 그리고 독송... 아침 공양 시간,

바루 공양 습의 중 습의사 스님들의 질책에 긴장하여 어떻게 공양을 했는지도 모르고 공양을 마쳤다.

빠듯한 일정 속에도 기다려지는 울력 시간과 빨래 시간 (조금 자유롭기 때문) 그나마 비라도 오게 되면 독송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다.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130여명의 원생이 짧은 휴식 시간에 작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감과 쫓기는 시간에 변비에 시달리지 않는 원생이 거의 없었고, 오후 불식 또한 힘든 과정의 하나였다. 그

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갔고 규칙적인 교육 일정들은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잡아 주었으며 스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른 행자님들을 보면서 나도 신심을 내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는 교육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드디어 마지막날의 철야 정진, 어느 때보다 정근 소리가 우렁차다.

교육을 마친다는 기쁨과는 달리 아쉬움이 남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사이 규정된 묵언을 간간히 어겨가며 친분을 두었던 원생들과 앞으로 다시 만나 훌륭한 도반이 되자며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사미계를 받고 가사 장삼을 수하는 순간 기쁜 마음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수행자로서 남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뿌듯한 마음으로 교육원을 나서자, 마중 나온 강원(도요) 스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승합차에 올라 맨 처음

가까운 가게에서 과자며 음료수며 먹을 것을 잔뜩 사서 차 안에 들어와 내내 먹고 또 먹었다. 마치 굶주린 아귀처럼...

차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송광사 행자실의 안부가 궁금하여 물었더니 그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양주 행

###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수행자로서 남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자님과 후원 보살님이 소임 중 화상을 입으셨고, 원주스님은 다친 허리가 재발하셨다는 것이다.

반장이었던 행자님은 하산하고 체공 행자님이 강원 스님들과 함께 후원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돌아가서 후원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만 들뿐 스님이 되었다는 기쁜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송광사에 도착하니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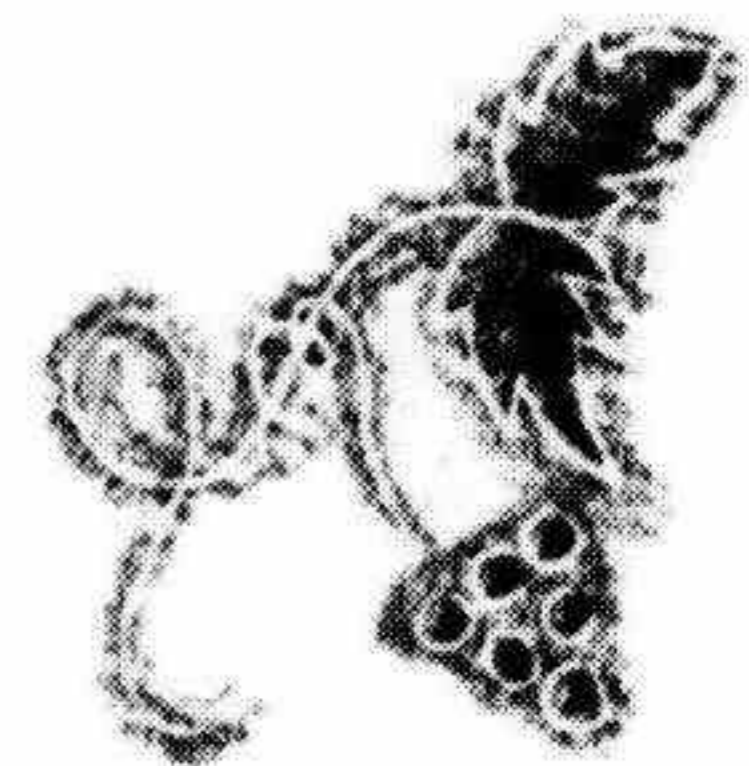
사스님과 사중 어르신 스님들에게 인사를 들이고 중현당에 여장을 풀었다.

수개월간의 행자 생활의 습관이 남아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차수가 되고 선열당에서 공양할 때는 스님 석에 앉기가 왠지 쑥스러워 머뭇거리 지기도 하였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스님이 된 것인지 아직도 행자인지 구분이...

하루가 지나자 다음날 강원 에 방부 들여야 한다고 하신다.

내가 큰방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하고 싶었던 큰방 생활이었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행자 시절에 바라본 큰방은 그 만큼 외경스러운 곳이었다.

호기심, 두려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오가 교차한다.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나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강원 에 들어가면 은사스님 성실히 시봉 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



# 영산재(靈山齋)에 관하여

사교/종지

- 目 次 -

## 1. 영산재의 의미와 기원

## 2. 영산재의 구성

- 안 차비(差備) - 바깥 차비
- 안 차비와 바깥 차비의 관계

## 3. 영산재의 진행 절차

- 시련(侍輦) - 대령(對靈)
- 관욕(灌浴) - 신중작법(神衆作法)
- 상단권공(上壇勸供) - 시식(施食)
- 화청(和淸) - 봉송(奉送)
- 식단작법(食壇作法)

## 1. 영산재의 의미와 기원

종교에 있어서 의식은 그 종교의 사상과 특성, 교화 방법 등의 성스러운 표출이라 생각한다.

불교 의식인 영산재는 단순히 영혼의 천도 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생전 당시 영축산(靈鷲山)에서 법(眞理)을 설하실 때 그 회상(會上)에 참석한 모든 대중(大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환희심을 일으켜 법열의 충만 되었던 분위기를 영산재라는 장엄(莊嚴)한 불교 의식을 통해 상징화시켰으며 제자들이 부처

님께 법을 청한데서 유래한 것이 오늘날 법회, 청법 의식이고 제자들과 함께 탁발(托鉢)하셨던 광경을 재현하여 의식화 한 것이, 현재 승가(僧家)의 법 공양(供養)이나, 식단작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부처님과 스님네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선망 부모에게 회향(回向) 시켰던 것이 오늘날의 천도(薦度) 의식의 기원이 된다.

영산재가 행해 졌던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산재를 구성하는 기본 여건이 되는 범패가 「삼



국유사(三國遺事)」나 쌍계사에 있는 진감국사 비명(碑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행하여 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영산재의 목적이 되는 영혼 천도 등의 불교 의례도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있었음을 「삼국유사」의 ‘월명사조(月明師條)’나 「조선금석총람」 「자각대사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영산재의 의식은 조선 중기에 증보(增補) 편찬된 「범음집(梵音集)」에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 연구 보전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영산재의 구성

영산재는 크게 안 차비와 바깥 차비로 구성 된다.

### - 안 차비

안차비는 법당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무용을 하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순수한 불교 의식이다. 정해진 의식 절차에 따라 목탁과 요령을 치고 흔들면서 독경(讀經)하고 안 차비 소리를 하면서 예경(禮敬) 절차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 - 바깥 차비

바깥 차비는 안차비와는 달리 대중적이고 토속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성향을 띤 의식이다. 따라서, 법당 안에서만 행하여 지는 의식 진행과는 달리 옥외(屋外)에 괘불(掛

佛)을 모셔 놓고 장엄하여 의식을 진행하는데, 바깥차비에서는 소리 곧 범패의 짓소리와 태징, 북, 호적 등의 악기를 반주하고 법고, 바라, 나비춤 등을 겸하여 영산재를 더욱 화려하고 구성지게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안차비와 바깥차비의 관계

안차비는 의식만 진행하면 되지만, 안차비에 여러 가지 의식을 겸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깥차비이다. 곧 바깥차비 진행의 기본 형태는 안차비에 두고 안차비에 없는 가(歌), 무(舞), 창(唱) 등을 첨가한 것으로, 의식 절차를 살펴보면 안차비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안차비의 기본 틀에 다른 의식을 혼용하여 바깥차비를 형성한다.

## 3. 영산재의 진행 절차

영산재는 시련 → 대령 → 관육 → 신중작법 시식 → 화청 → 봉송 → 식단작법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 - 시련(侍輦)

시련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보살님을 의식도량으로 모셔 오거나 천도할 영혼을 불러오는 의식 절차로써 사원 입구에 나아가 연(輦)으로 모셔 온다는 뜻을 지닌다. 이때 인로왕보살 번기(幡旗)를 선두로 각종 영기(令旗) 행렬이 뒤따른다. 시련 장소로 모이게 되면 먼저 태징을 세 번 친 다음 옹호계(擁護偈)를 합창하고, 요잡을 정자(丁字)로 둘러 디디고, 법주가 요령을 흔들며

헌좌진언(獻座眞言) 한 후, 다게작법(茶偈作法)을 합창하며 갖은 풍악을 내면서 돈다. 다게작법이 끝나면 시련 장소 앞에서 호적소리에 맞추어 나비춤을 추는데, 이를 법주가 받아서 산화락(散花落)으로 들어간다. 이어서 나무인로왕보살의 삼설(三說)을 하고, 대중들과 함께 법당을 향해서 영취계(靈鷲偈)를 한 후 보례삼보(寶禮三寶)를 독창(선창)하고 영가를 영단에 모시는 것으로 시련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 대령(對靈)

대령은 의식 도량에 모셔진 영혼에게 간단한 접대를 하고 불 보살님 전에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시련을 한 뒤 법당에서 대령상을 차려 놓고 거불(擧佛)을 한 후, 법주가 대령소(對靈疎)와 수설대회소(修說大會疎)를 독창한다. 수설대회소가 끝나면 태징을 세 번 울리고 지옥계(地獄偈)를 영전에서 독송한다. 다시 법주가 받아 영가축원(靈家祝願)과 함께 착어(着語: 영가에게 법문을 일러주는 것을 말함.)를 독창하고, 진령계(振鈴偈)에 들어가서는 법주가 선창하면 태징과 바라는 후창하며, 법주가 고훈청(孤魂請: 영가를 법회 도량에 청하는 것)을 하고, 바라지가 받아 가영(歌詠)으로써 향연청(香煙請)을 하면서 대령을 마친다.

- 관욕(灌浴)

관욕은 영혼이 불단에 나아가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담은 의식이다.

먼저 인예향욕편(引詣香浴篇)을 법주가 하고, 요잡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합창이 끝나면 법주가 입실계(入室偈)를 독송한다. 이때 위패는 병풍 안으로 모신다. 가지조욕편에서 관욕 씻종을 여섯 번 치고 화의재진언(化衣財眞言)에서 종이로 만든 영가 옷을 병풍 안에서 태우며, 출욕참성편(出浴 聖篇)을 할 때 위패를 병풍 밖으로 모신 후, 정중계(庭中偈)와 보례삼보로 불보살님께 예를 올리고, 법성계(法性偈)를 요잡으로 들고 위패를 영단에 모시고 수위안좌진언(受位安座眞言)을 하면 관욕이 끝나게 된다.

- 신중작법(神衆作法)

신중작법은 불보살님을 도량에 청(請)하여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미로 화엄신장(華嚴神臟)인 옹호성중(擁護聖衆)을 의식 도량에 청하여 공양을 권하는 의식이다.

- 상단권공(上壇勸供)

상단권공은 불보살님을 청정 도량에 청하여 공양을 권하고, 법문을 듣고, 가피 입기를 발원하고 기원하는 절차로 영산재의 핵심을 이루는 의식이다. 이때 괘불을 이운 하게 되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연유를 부처님께 알리게 되는 건회소(建會疎)가 들어가게 되며, 법사를 이운 해서 법을 청하고 법문을 듣게 되는 등 영산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절차이다.



### 재의식

감로왕탱의 중단으로 재를 올리는 모습을 그 내용하며 승무와 바라춤이 행해지는 장면이다.

#### - 시식(施食)

시식은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제사 의식이다. 별도로 마련된 영단(靈壇) 앞에서 행하여지는데 보통 관음시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시식 절차에 이어 유주 무주 고힌을 모두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전시식(奠施食) 의례를 겸하여 베풀게 된다.

#### - 화청(和淸)

일명 걸청(乞淸), 지심걸청(志心乞淸)이라고 부르는 의식으로 천도 할 영혼의 극락정토왕생을 발원하는 뜻으로 행해진다. 정해진 순서나 절차는 없으며 보통 시식 앞뒤에서 사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화청의 장단으로는 관음정진장단, 아미타 염불장단과 회심곡 권왕가, 자책가 등의 종류로 민속적인 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식이다.

#### - 봉송(封送)

봉송은 영산재의 의식 도량에 초청된 불보살

님, 옹호성중, 영혼 등을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불보살님과 옹호성중, 영혼 등을 차례로 봉송한 후, 소대(燒台)에서 의식에 사용된 영혼의 옷가지와 갖가지 장엄 용구 등을 불사르고 모두 태워, 공(空)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이다.

#### - 식단작법(食壇作法)

식단작법은 이상의 모든 의식을 마친 뒤 괘불을 내려 원래 자리로 모시고 참석한 대중이 모여 공양을 하는 의식이다.

※ 영산재는 불교 최대의 의식중 하나이며 범패, 화청 등의 불교 음악이 우리 전통적인 민속 음악 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려된다. 가장 이상적인 모임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상징화한 의식으로, 중요한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영산재는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로도 높이 평가된다.

## 칠처징심(七處徵心)

사교/도제

若不識知 心目所在, 卽不能得 降伏塵勞. 譬如國王 爲賊所侵 兵討除, 是兵 要當知 賊所在. 使汝流轉 心目爲咎, 吾今問汝. 唯心與目 今何所在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바로 번뇌(塵勞)<sup>1)</sup>를 항복 받을 수 없다. 비유하면 마치 국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서 군대를 동원하여 적을 물리치고자 할 때에 그 군대가 적병이 있는 곳을 마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다.

너로 하여금 윤회<sup>2)</sup>하게끔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이 허물이니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마음과 눈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阿難 白佛言, 世尊 一切世間 十種異生, 同將識心 居在身內. 縱觀如來 青蓮華眼 亦在佛面, 我今觀此 浮根四塵 祇在我面, 如是識心 實居身內.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길, 세존이시여! 일체세간의 열 가지 다른 중생<sup>3)</sup>들이 한결 같이 식별하는 마음<sup>4)</sup>을 몸속에 지녔습니다. 설령 여래의 푸른 연꽃 같은 눈<sup>5)</sup> 또한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제가 지금肉眼(육안)<sup>6)</sup>과 四塵(사진)<sup>7)</sup>을 관찰해 보아도 단지 제 얼굴에 있사오니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 몸속에 있다 할 것입니다.

1)번뇌(煩惱) : 범어Klesa의 번역. 미혹이라고도 번역함. 중생의 몸이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는 정신 작용의 총칭

2)流轉 : 생사의 流轉이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서 나고 죽고 하는 게 流轉이다. 즉 生死輪廻

謂心在內 目在外, 自衆生 至如來阿難 皆然 文互見也.

異生 有十二類, 除土木空散, 非心眼倫也. 眼根外浮 假地水火風 四塵以成 及其散也 還歸於塵, 故以塵名.

'마음은 안에 있고 눈은 밖에 있다' 하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여래나 아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하니, 이는 글에서 서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중생은 열두 종류가 있는데 흙, 나무와 허공에 흩어져 있는 것은 제외 시켰으니 마음과 눈이 있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眼根(안근)<sup>8)</sup>은 밖에 있어서 四大(사대)<sup>9)</sup>와 四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흩어져서 다시 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塵이라 한다.

佛告阿難 汝今現坐 如來講堂 觀祇陀林 今何所在 世尊 此大重閣 清淨講堂 在給孤園, 今祇陀林 實在堂外.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여래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림<sup>10)</sup>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존이시여!

이 여러 층으로 된 전각 중에 청정한 강당은 금고독원<sup>11)</sup>에 있고 기타림은 실로 강당 밖에 있습니다.

3) 十種 異生 : 胎, 卵, 濕, 化 4생에 有色, 有想, 非有色, 非無色, 非有想, 非無想이다.(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하여 생겨 나는 것, 색깔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닌 것, 색깔이 없는 것이 아닌 것, 생각을 지닌 것,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의 열 종류이다)

4) 識心 ⇒ 6識 또는 8識의 心王 6識 ⇒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5) 靑蓮華眼 ⇒ 靑色の 蓮華를 이름인데 靑白이 분명하여 大人의 눈 모양이 있으므로 불타의 눈을 비유한 것임.

6) 浮根 ⇒ 흐릿한 눈, 즉 肉眼을 말함.

7) 四塵 : 색, 향, 미, 촉을 합쳐서 일컫는 말 . 聲은 有라고도 無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말하지 않는다.

8)안근 ⇒ 六根의 하나. 즉 눈

9) 四大 : 地, 水, 火, 風

10) 기타림 ⇒ 기타 태자가 부처님께 바친 원림.

定内外境 欲明在内之心 當次第見.

안과 밖의 경계를 정한 것은 안에 있는 마음이 반드시 차례로 보게 됨을 밝히고자 함이라.

阿難 汝今堂中 先何所見 世尊 我在堂中 先見如來 次觀大衆 如是外望 方囑林園.

아난아! 네가 지금 강당 안에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여래를 보고 다음에 대중을 보며 이렇게 밖을 바라보아 기타림과 급고독원을 봅니다.

定先後見 欲破在内之心 不先見内.

먼저 보고 뒤에 보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안에 있는 마음이 먼저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다.

阿難 汝囑林園, 因何有見 世尊 此大講堂 戶爽開豁, 故我在堂 得遠瞻見.

아난아! 네가 기타림과 급고독원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보느냐?

세존이시여!

이 큰 강당이 문과 창이 활짝 열려 있으므로 제가, 강당 안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皆 且引事辯定, 下乃牒破.

모두 사물을 인용하여 분별해 결정하고 아래에서 곧 바로 이를 파하셨다.

11) 급고독 ⇒ 기타 태자가 바친 동산에 수달장자가 집을 지어 부처님께 바친 절. 수달장자는 자선사업가로 고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급고독 장자라는 별명을 얻음.

爾時世尊 在大衆中 舒金色臂 摩阿難頂, 告示阿難 及諸大衆, 有三摩提 名大佛頂 首楞嚴王, 具足萬行, 十方如來 一門超出 妙莊嚴路, 汝今諦聽. 阿難頂禮 伏受慈旨.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가운데서 금색 팔을 펴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시고 아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삼마제는 대불정수능엄왕<sup>12)</sup>이라 부르고 만행을 구족하였으며 시방여래가 한 문으로 뛰어나게 하는 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아난이 오체투지<sup>13)</sup>하고 자비하신 가르침을 받았다.

三摩提 亦云三摩地 亦云三昧, 此云正定. 首楞三昧 千聖共由 故曰一門. 妙莊嚴海 由此而至 故謂之路.

삼마제<sup>14)</sup>는 삼마지라고 하며 또한 삼매라고도 하니 이것을 正定이라 말한다. 수능엄 삼매는 千聖이 함께 하는 원인이므로 하나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묘하고 장엄의 바다를 이로 인해 이르기 때문에 길이라 한다.

佛告阿難 如汝所言, 身在講堂 戶牖開豁 遠囑林園, 亦有衆生 在此堂中 不見如來 見堂外者 阿難答言 世尊在堂 不見如來, 能見林泉 無有是處.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기를 강당 안에 있으나 문과 창이 활짝 열렸으므로 멀리 기타림과 급고독원을 본다하니 그렇다면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여래를 보지 못하고 강당 밖을 보는 이가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는 이가 여래를 보지 못하고 기타 숲과 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 大佛頂首楞嚴王의 大과는 당체를 가리킨 것으로 절대의 大이다. 佛頂은 無上을 말한다. 首楞嚴은 健相分別, 健行, 一切事畢竟堅固이니 부처님께서 얻은 三昧의 이름이다. 王은 삼계 가운데서는 최고의 三昧를 표한 것임.

13) 五體投地 ⇒ 사람의 온 몸, 머리와 四肢(두손과 두 무릎), 5體를 땅에 붙여 절하는 것을 말함.

14) 正定 : 八正道의 하나. 四諦의 진리를 바로 봄. 正見을 가지고 바른 禪定을 닦는 것.

身在堂中 合先見內.

몸이 강당 안에 있으므로 먼저 안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阿難 汝亦如是. 汝之心靈 一切明了, 若汝現前 所明了心 實在身內 爾時先合 了知 內身, 頗有衆生 先見身中 後觀外物

아난아 너도 너의 신령한 마음이 온갖 것을 분명히 아는데 만약 너의 그 분명 아는 마음이 실로 몸 안에 있다면 그때 먼저 몸속을 볼 것인데 어떤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나중에 밖의 물건을 보겠느냐?

心在身內 合見身中 頗猶可也. 引衆以問 決不能也.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마땅히 몸속을 볼 것이다. 頗(매우)는 可(모든)뜻과 같다. 중생을 이끌어 물어서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縱不能見 心肝脾胃 爪生髮長 筋轉脈搖 誠合明了 如何不知 必不內知 云何知外

비록 엄통, 간, 지라, 밥통 같은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쯤은 실로 확실히 보아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몸 속의 것을 완전히 보지 못하면서 밖의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는가?

心胃內藏 終不能知, 爪脈外浮 云何不曉 既不內知 果非在內矣.

심장과 위는 내장이다. 설렁 보지 못하더라도 손톱과 털은 밖에 (몸속의 바깥 부분)있거늘 어찌 보지 못하는가? 안을 보지 못하기에 마음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是故應知汝言覺了 能知之心, 住在身內 無有是處.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네가 말한 깨닫고 아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결림 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데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해 턱없이 악행 하지 말고, 핑계 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으로 원망을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客氣)를 부려 만용(蠻勇)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中道)를 지켜라.  
 병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워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부처님 제자의 삶이니라.

# 편집후기

방학이 끝나고 일주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번호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취재는 어디로 다녀올까, 원고 청탁은 누구에게 하나, 카메라도 새로 사야 하고, 편집위원들도 좀 더 늘어나야 할텐데... 계획했던 만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홉 번째 보따리를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며칠 밤을 세워 가며 교정을 도와주신 연수스님, 울력 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댔던 한운스님, 원고 독촉하느라 온 사중을 누볐던 사집반 편집위원 스님들, 귀중한 간경시간을 할애해서 흔쾌히 백일장에 임해 주신 큰방스님들 이 모두가 아홉 번째 이야기의 고마운 얼굴들입니다.

밖에는 가뭄을 쫓아내려고 큰비가 한창입니다. 계속마다 그 동안의 맺힌 한을 토해 내고, 잔뜩 쪼그렸던 조계산 나무들도 주름을 펴기 시작합니다. 더도 말고 이 번 봄호도 오늘 단비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 후원하여 주신분들

적경스님, 진옥스님(석천사), 대원스님(교무), 현장스님(대원사), 광주약수암, 수연스님, 정오스님, 원상스님, 도안스님, 시공스님. 이익형, 김보리심, 연지화, 박보광월, 황남채, 황부경, 나근혁, 이현주, 이경미, 박경채, 김미애, 송은식, 김윤정, 기현정, 나풍실, 오성규, 조석순, 이정심화, 윤대리심, 박영준, 조극락행, 임철훈, 김수성, 박모순, 조영옥, 홍상희, 박지용, 강신월, 김학주, 안희경, 박득조, 진규삼, 이미향, 유춘옥, 진여성, 강석창, 김창주, 박봉래, 전미엽, 류인석, 신증녀, 최현법, 차지영, 최원석, 이정숙, 공용표, 이동숙, 김애란, 한경자, 신동녀, 길상화, 임애경, 박진석, 이정렬, J.S.Ger, 김갑숙, 성희자, 정희진, 허명옥, 이상래, 김경목, 정낙선경희

##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수**행의 향훈을!

순수 강원지 해청당은 학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편집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인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하고 오직 인쇄만 외부 인쇄소에 맡겨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아래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1676-0016222-12

예금주 : 강정신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강원 내 「해청당」편집실  
우. 541-390  
☎ (0661) 755 - 5302

2540년 송광사강원

#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0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           |        |
|--------|-----------|--------|
| 방부받는 반 | 치문반 ..... | ○○ 명   |
|        | 사집반 ..... | 편입 ○ 명 |
|        | 사교반 ..... | 편입 ○ 명 |
|        | 대교반 ..... | 편입 ○ 명 |

|     |               |
|-----|---------------|
| 자 격 |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
|     | 사집반 : 치 문 수료자 |
|     | 사교반 : 사 집 수료자 |
|     | 대교반 : 사 교 수료자 |

|         |                  |      |
|---------|------------------|------|
| 제 출 서 류 | 방부원서 .....       | 2부   |
|         | 은사스님 추천서 .....   | 1부   |
|         | 승적사본 .....       | 1부   |
|         | 승려증사본 .....      | 1부   |
|         | 주민등록등본 .....     | 1부   |
|         | 건강진단서 .....      | 1부   |
|         | 수료증(편입생) .....   | 1부   |
|         | 사진 (3 × 4) ..... | 3매   |
|         | 방부금 .....        | 20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2540년 5월 15일 ~ 5월 31일 (양력)

문 의 처 : (0661)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臨鏡堂 臨한 이와 거울속에 비치신 이  
 對한 이는 누구시고 비친 이는 또 누구신고  
 이윽고 헤어져가니 慙愧心만 남구려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臨鏡堂 맑은 물에 기둥세워 그림같은 누각이 있다.  
 현재 도서관과 종무소로 쓰이고 있다.